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에 관한 레오 14세 교황의 사회 회칙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

서론(INTRODUCTION)

1. 하느님께서 그 모든 위대함으로 창조하신 인류는 오늘날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곧, 새로운 바벨탑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인류가 함께 머무는 도성을 지을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세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수호되고 정의가 증진되며 형제애가 실현되는 장소로 역사를 이끌고, 자기 시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는 인간미를 상실한 더 불의한 세상을 만들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생하신 하느님께 눈을 돌립니다. “인간의 신비는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1].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인류는 우리 각자가 충만함을 향해 자라날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2.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기초를 둔 우리는 성령의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활동을 체험하며, 선을 위해 성령과 협력하려는 인간의 모든 진정한 노력이 희망의 근원이신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모든 이니셔티브에 부지런히 기여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통합적 발전을 증진하는 데 다른 이들도 협력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사건과 질문, 열망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든 남녀와 대화하기를 바랍니다[2].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동선과 모두의 존엄한 삶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참으로 대화에 대한 개방성은 교회의 성소에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결합과 온 인류의 일치”를 이루는 성사[3]로 세워진 교회는 역사를 복음이 인간의 경험에 도전하고 그것을 이끄는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정신으로, 교황 레오 13세는 1891년에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반포하였으며, 올해 우리는 깊은 감사로 이 회칙 반포 제135주년을 기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전임 교황께서는 이 문헌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사회 교리’로 알려진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성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교회가 현세적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담화를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어떤 이들이 반대했을 때, 레오 13세께서는 현실 감각과 지혜로 응답하며 복음 선포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4] 그 뒤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교도권과 사목자들, 신학자들과 신

자들은 복음의 빛 안에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회 교리는 사유를 위한 원리, 식별과 판단을 위한 기준, 그리고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유산입니다. 성경과 성전에 바탕을 두고 인문 과학과 대화하는 사회 교리는 우리가 현재의 도전을 명확히 해석하고, 세상에 봉사하며 기쁨 가득한 분명한 그리스도인 증거의 삶을 살아갈 적절한 길을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활기없는 개념들의 집합이 아니라, 충만하고 정의로운 삶을 향한 인류의 성소를 수호하고 해석하는 살아 있는 진리의 유기체(corpus)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에 거해 오신 지혜의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이 살아 있는 전통에 저의 목소리를 보태고자 합니다 (잠언 8,22-31 참조).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태(The res novae of our time)

4. 레오 13세는 당신 시대의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말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반복하는 데 머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 특히 기술 진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로봇 공학이 얼마나 신속하고 심오하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인류에 적대적인 힘으로 여겨져선 안 됩니다. 반대로 기술은 태초부터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에 긴밀히 연결된, 매우 인간적인 현실”[5]로서 우리 역사의 일부를 형성해 왔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동시에, 각 발전 단계는 선을 지향하지 않을 때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들의 모호성도 드러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기술의 힘과 보편성은 일상생활의 구조에 스며들어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하고 집단적 상상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곧, “인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토록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6] 신기술은 상상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예측하진 못하는 방향으로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의 잠재적 영향과 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선 모두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5. 이제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명확한 사유와 책임감을 가지고 직면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기술 권력의 왜곡된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규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이 권력을 누가 쥐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현실적으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핵에너지, 생명 공학, 정보 기술, 우리의 DNA 지식, 그리고 우리가 습득한 여러 다른 능력들이…… 지식을 가진 이들, 특히 그것을 사용할 경제적 자원을 가진 이들에게 온 인류와 전 세계에 대한 가공할 지배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7]. 과거에는 혁신을 주도하고 지향하는 것이 주로 국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전의 주요 동력은 많은 정부의 자원을 증가하

고 개입할 힘을 갖고 있는 **사적 진영, 종종 초국가적 행위자들**입니다. 이처럼 **기술 권력**은 전혀 없이, 주로 ‘사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는 그러한 권력을 식별하고 협치를 구축하며 공동선을 향해 지향하도록 만드는 일을 더 도전적인 일로 만듭니다.

6. 이러한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변화들의 영적, 문화적 뿌리를 식별하기 위한 공동의 식별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발적 상황들에만 집중한다면, 연이은 비상사태가 우리 여정의 방향을 좌우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전환기, 곧 ‘시대의 변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기술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다른 이들은 이 문제를 성찰하는 데 전념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멀리서 관망하며 그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양심에 중대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까? 우리는 한 백성이자 인류 공동체로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까?

두 개의 성경 이미지(Two biblical images)

7. 이 질문들에 답하고 AI 시대를 책임 있게 헤쳐 나갈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저는 성경의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곧, 바벨탑 건설(창세 11,1-9 참조)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느헤 2-6 참조)입니다. 바벨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노아 아들들의 족보 바로 뒤인 인류의 기원 부분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쉬나르 땅의 한 평야에 자리를 잡은 뒤,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성읍과 탑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창세 11,4).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스스로 안정과 권력을 보장받고, 무엇보다 ‘이름을 날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기술, 하나의 방향이라는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깊은 위험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언급 없이 구상한 프로젝트였으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친교보다 획일화를 선택한 동질성으로 지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읍이 교만과 자급자족의 주장 위에 세워질 때, 소통은 단절되고 언어는 혼돈에 빠지며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일치가 아니라 흩어짐입니다. 이처럼 바벨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고, 효율성을 위해 인간 존엄성을 희생시키며, 하느님 축복 없이 하늘에 닿으려는 모든 노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8. 반면 느헤미야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취약했던 시기에 시작됩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 백성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성읍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문들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느헤 1-2 참조).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섬기던 유대인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성읍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행동에 나서기 전에 단식하고 기도하며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도착하자마자

자 파괴된 지역들을 침묵 속에 살피보았습니다. 그는 위에서부터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들을 소집하여 각자에게 재건할 성벽 구역을 할당하고, 그들의 염려에 귀를 기울였으며, 노력을 조율하고 온갖 반대에 대처했습니다. 이 서사는 성읍이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니라 남녀, 사제, 장인, 가장, 젊은이 등 모든 이의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을 통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보여 줍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돌로 성벽을 다시 쌓기 전에 **관계를 먼저 재건하는 사업**입니다. 이리하여 고대 예루살렘은 언어를 재발견합니다. 이는 획일화의 언어가 아니라 친교의 언어, 곧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자신들의 힘이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생겨나는 **조화의 언어**입니다.

9. 이 두 가지 이미지의 빛으로 성령께서는 오늘날 기술 및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과 우리 관계에 도전하십니다. 과학적 발견은 인류가 열매를 맺도록 맡겨진 **탈렌트**입니다(마태 25,14-30 참조). 기술은 치유하고, 연결하며, 교육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또한 분열시키고, 배제하며, 새로운 형태의 불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볼 때 기술은 그 자체로 인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을 고안하고, 자금을 대고, 규제하고, 사용하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선택은 기술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냐가 아니라, 바벨탑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곧, **하늘을 지배하려는 권력과 형제적 공존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느님 앞에서 함께 일하는 백성 사이의 선택**입니다.

10. 따라서 우리는 ‘바벨 증후군’, 즉 약자를 희생시키는 이윤의 우상 숭배, 차이를 무력화하는 획일화, 그리고 단 하나의 언어(디지털 언어조차도)가 인간의 신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데이터와 성과로 번역할 수 있다는 자만**을 피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배제하고 타인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미래를 건설하는 인간성 상실(dehumanization)의 위험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끊임없는 유혹이며, 오늘날에는 기술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유배 정착민들이 돌아올 안전한 처소로 하느님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느헤미야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재건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때로는 음성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돈을 연상시키더라도, **목소리와 비전의 복수성(plurality)에서 밝은 가능성이 떠오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함께 건설하고, 다양성을 자원으로 전환하며, 경청과 대화를 정의와 형제애를 가꾸는 공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공동의 과업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여 그분의 빛 안에서 다원주의가 무질서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을 통해 인류가 자신의 견고한 기초와 궁극적 목적을 재발견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고유한 역할을 발견합니다. 요한 요한묵시록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온 인류를 위한 선물로서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묵시 21,2)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도성들’ 안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존엄한 공동체적 삶을 육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초대합니다.

공동선을 위한 건설(Building for the common good)

11. 공동선에 기초한 도성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견고한 관계 위에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 사랑의 진리가 우리를 “넘치는”(요한 10,10) 생명과 그분과의 친교로 부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리도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향하도록 저희를 만드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평화가 없나이다”[8]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삶의 모든 차원을 포용하는 행복에 대한 갈망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의 남녀와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열망을 보호하고 그것을 가장 깊은 진리로 인도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둘째로, **공동선을 위해 건설한다는 것은 인류의 한계와 악함을 교정해야 할 오류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모든 악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기술이라는 기만적(欺瞞的) 목표와, 전체 인구를 뒤처지게 만드는 웰빙 모델로 인해 오도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제한 ‘업그레이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형태의 진보, 그리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즉각적 해결책에 희망을 둡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무제한적 자기확신의 환상을 좇는 동안, 많은 이는 기본적 필수품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확고하면서도 겸손한 목소리로 **참된 성취는 악함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참된 성취는 자유와 책임이 상호 돌봄 및 참된 연대성과 연결된 곳, 그리고 진보가 각 사람의 존엄성과 모든 민족의 선익으로 측정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13. 셋째로,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려면 공동의 책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나기”(2코린 12,9) 때문에, 그 누구도 세상이 직면한 도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과학자와 연구자, 기업가와 노동자, 교육자와 입법가, 시민사회, 대중 운동과 신앙 공동체 등 모든 이에게 성벽의 고유한 구역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민족, 학문, 문화 간 협력을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가꾸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보조성 원리(subsidiarity)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긴장이나 차이에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공동의 책임으로 인도될 때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마지막으로, 공동선을 위해 건설하려면 복음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말을 피하고, 빛을 비추는 명확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솔직함을 선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진한 열광을 용인할 수도 없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부추길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식별을 위한 기준—인간 존엄성, 재화의 보편적 목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과 평화—을 세우고, 이 기준들을 책임 있는 계획, 인간적·사회적 영향 평가, 가장 취약한 이들의 포용,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그리고 연구와 산업을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실천으로 옮깁시다.

인간으로 남기(Remaining human)

15. 최근 2025년 정기 희년(Ordinary Jubilee Year)에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로 걸었으며 많은 은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물로 굳건해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고된 과업과 엄중한 도전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성 상실로 위협받을 때, 우리에게는 심오하게 인간적인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긴급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계시된 인류의 위대함을 사랑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그 광채는 어떤 기계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진보는 언제나 타인에게 열린 마음, 기꺼이 경청하려는 지성, 그리고 갈라놓는 것보다 결합시키는 것을 찾는 의지에서 비롯합니다.

16. 저는 모든 가톨릭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의를 가진 모든 남녀에게 이 진심 어린 호소를 전합니다. 우리 시대의 ‘건설 현장’에서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며, 끈기 있게 일합시다. **우리 행동의 맨 앞에 하느님을 두고, 우리 선택의 중심에 인간을 둡시다.** 그리하면 가난한 이들, 병자들, 이주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과 같은 ‘버려진 돌들’이 모퉁잇돌이 될 것이며, 사랑과 진실이 마침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시편 85,11 참조) 견고하고 환대하는 공동의 집이 이 땅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간청하는 축복이며,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은 **바벨탑의 건축가가 되기보다 친교의 건설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멸할 운명의 탑을 다스리는 군주가 아니라, 다가올 하느님 나라의 종이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모든 이에게 또 다른 바벨탑의 건설을 버리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결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세상이 다시 한 번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머무르고자 하시는 처소로 인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1장 복음에 충실한 역동적 접근

A DYNAMIC APPROACH FAITHFUL TO THE GOSPEL

17. 제1장에서 저는 교회의 사회교리가 지닌 역동적 성격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근의 교황 교도권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회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자 합니다. 참으로 각 시대의 '새로운 사태'(res novae)는 이 가르침이 계시된 진리의 빛으로 역사적 질문들을 다룰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역시 단순히 연구해야 할 또 하나의 주제나 관리해야 할 위기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회교리의 범주들을 내부로부터 도전하고 복음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요청하는 하나의 진전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18. 그러나 개별 교황들의 기여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헌들을 성찰하기에 앞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몇 가지 근본 원리들을 먼저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요는 그리 잘 이해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교리는 '세속'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위로부터 강요된 외적인 윤리 규범으로 인식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교리는 인류와 나란히 걸어가며 지상 현실의 자율성과 교회 공동체 및 정치 공동체 간의 구분을 인정하는 교회로부터 비롯됩니다.** 참으로 바로 이 때문에 교회는 공동선에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여정에 함께 하는 교회

(A Church journeying through human history)

19. 교회는 인류 가족 전체의 일치를 위한 표징으로 세상에 현존합니다. 교회는 오늘의 질문들과 도전들을 귀 기울여 들음, 대화, 봉사라는 자신의 특별한 소명을 수행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남녀의 삶에 관한 모든 것에 응답하는 현재의 배경으로 인식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참여는 교회가 자신의 사명이 역사적 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 관계가 구축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사회를 형성하는 힘들을 낫선 존재로 여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사회가 성장하고 조직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더 정의롭고 형제애 넘치는 사회의 창조를 위해 고유하게 나뉠의 기여를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회 사명의 이러한 역사적 차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 누구도 종교가 시민 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 없이,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 없이, 사회 생활과 국가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개인 삶의 내밀한 영역으로만 격하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9]

20.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남녀의 자유를 하느님께서 지탱해주심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역사의 구체적 상황에서 인류와 동반해야 하는 소명과 의무는 지상 현실이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과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이끕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025년 12월 7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했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제60주년에서 이 원리를 매우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현세 재화의 자율성이라는 말이 피조물과 인간 사회가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면 ... 이러한 자율성의 요구는 온당합니다."[10] 이 확언은 피조물이 우리의 인간적

시선이 보존하고 가꾸며 완성으로 이끌어야 할 본연의 선함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현실을 온전한 깊이로 해석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자신을 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 공동체의 결속, 그리고 모두의 선을 증진하는 선택들을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지지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지 않으면서 세상 곁에 서 있으며, 성령께서 인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탱해 주시는 정의와 평화의 약속이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21. 하느님께서 역사의 전개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지탱해 주심을 인정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공동체와 정치 공동체 간 구분을 확인하였고, 각 공동체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상 속 교회의 현존은 시민사회 및 공공 제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주체들과 관여함으로써 교회는 사회적·정치적 현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구체적 책임을 존중하며, 개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 구조를 강화하는 모든 것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속한 기능을 자신이 떠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공동선에 봉사하는 이들을 존경하며, 사회 내에서 시민 제도들이 지닌 책임을 확고히 인정합니다. 동시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교회가 우리 시대 남녀의 실존적 고통을 다루라 촉구합니다. 이러한 가까이 다가감은 시민 제도를 대체하려는 의도나 그들의 활동에 대한 암묵적 비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복음적 사랑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이 사랑은 인류의 상처가 더 심각히 드러날 때마다 교회가 그 상처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재촉합니다. 교회가 개입할 때, 교회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라 신중함과 가까이 다가감으로 그렇게 하며, 시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규범이 될 수 없고 시민 공동체 고유의 제도적 책임을 대체할 수도 없음을 인식합니다.

22. 이 두 가지의 인정—즉 지상 현실의 자율성과 교회와 정치적 역량 영역 간의 구분—에서 출발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위해 설정한 방향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쁨과 희망》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식별하여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 전체, 특히 사목자들과 신학자들의 임무이다. 이는 계시된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잘 이해되며 더 적절하게 제시되도록 하려는 것이다"[11]라고 상기시킵니다. '수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사회학적 실천이 아니라 영적 식별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느님 백성은 문화적·사회적 변혁 속에서, 오시어 역사를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징들과 그분의 얼굴을 가리는 나쁜 일탈들을 모두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시된 진리의 본질적 핵심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선택을 인도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의 길을 고무하며, 구조적 개혁을 증진하고 공적 생활에서 복음적 증거의 새로운 형태들을 지지하기 위한 살아있는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수용됩니다. 이로써 역사는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복음의 인간화하는 힘에 대해 배움을 얻는 장소 중 하나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모든 민족의 선을 위한 봉사 속에

서 자신의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인간 과학과의 대화 속에 있는 하느님 말씀의 지혜

(The wisdom of the word of God in dialogue with the human sciences)

23. 교회는 ‘진, 선, 미’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모든 이를 여정의 동반자로 여기며, 그들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 ‘소중한 협력자’[12]로 여깁니다. 시대의 징표를 귀 기울여 듣고, 식별하며, 해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적 접근을 채택하고 말씀의 지혜에 비추어 사유하면서, 교회는 인간의 지식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느님 말씀은 정의의 길을 확립하고 민족들 사이에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 시대의 복잡한 상황에 적용할 때, 철학과 인문학, 사회 과학의 기여는 필수적입니다. 이 학문들은 우리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역동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돕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사회 과학의 기여를 환영하는 이유가 “교회의 교도권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통찰을 이끌어내기 위함”[13]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과의 대화가 복음의 힘을 감소시키진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진정으로 증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큰 명확성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교황 프란치스코는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교회가 ‘결정적 의견’[14]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과학 연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 사이의 진지하고 정직한 토론을 장려하는 동시에 의견의 다양성을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4. **복음과 인간 지식 사이의 이 풍요로운 대화로 자양분을 얻으며, 교회는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에 뿌리를 둔 신학적·인간학적 일관성으로 표시된 지혜로운 유산을 역사 속에서 가꾸며 자신의 사회교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확히 이 유산이 신앙과 현실에 대한 상응하는 비전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 해결책들의 목록이나 다른 모델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모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교리는 다른 질서,[15] 즉 사건들의 해석을 인도하고 역사적 과정들과 이것이 수반하는 선택들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지탱하는 원리들의 질서에 속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회교리의 고유한 기능이 있으며, **사회교리는 정치나 제도의 책임을 대체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엄성, 공동체의 활력, 그리고 공동선에 봉사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증진하도록 도우면서 집단적 식별을 위한 토대로 자신을 제공합니다.**

공동 식별인 사회교리

(Social Doctrine as a shared discernment)

25. 진리가 독점해야 할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해야 할 선물임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권

력에 기반한 현존 방식을 추구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강요되지 않는 진리의 온화한 선포라는 복음적 접근을 정직하게 재발견하기 위해,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진리를 위해 불관용과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던” 시대들을 솔직히 반성하도록 우리를 초대했습니다.[16] 동일한 맥락에서 저 또한 진리는 방어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공유해야 할 선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다”[17]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간이 공간보다 더 위대하다”[18]는 그의 인상적 어구로 이와 동일한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문화적 요새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과정을 시작하고 그것들이 성숙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진리는 위로부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공동체와 문화들이 구체적으로 짜여나가는 복잡함 속에서 시간을 거치며 성장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환영하고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전환하며, 역사가 흘러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을 다시 결합시킵니다. 이 개념은 복음의 하나의 진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반영되는 다면체[19]의 이미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6. 동시에 단 하나이면서도 다양한 진리에 대한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교회의 보편성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인류 가족 전체를 포용하면서도 민족들과 문화들의 구체적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로 이 보편성에 힘입어 “각 부분은 자기의 고유한 선물을 다른 부분들과 교회 전체에 전달한다”[20]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교회는 상호 교환과 대화, 그리고 더 충만한 친교를 향한 공동의 노력 덕분에 전체로서 그리고 개별 공동체로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백성은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모여들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소명, 문화, 전통을 통해 서로 얹혀 있으며, 각자는 서로를 지지하고 풍요롭게 하도록 불리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 바오로 6세는 역사적 상황의 거대한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교회의 사회 교리가 모든 문맥에서 유효한 단 하나의 응답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인정했습니다.[21] 이러한 이유로 그는 각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기 국가의 현실을 명확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지닌 보편성과 교회의 지역적 뿌리 사이의 생산적 긴장은 교회 삶의 본질적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 세상을 포용하면서도 복음이 형태를 갖추는 실제 배경으로서 각기 맥락이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28.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춰 교회의 사회교리를 더 진정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리는 적용해야 할 원리들과 규범들의 핸드북이 아니라, 공동 식별의 과정**입니다. 사회교리는 복음의 영원한 진리와 역사의 질문이 만나는 데서 탄생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징표들에 도전받는 것을 허용하며 과학, 문화, 그리고 인간 경험의 기여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의 존엄성이 침해당할 때, 정치가 인류의 비극을 다루는 데 실패할 때, 경제가 사람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 혹은 과학이 자신의 역

량 한계를 넘어설 때[23],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 및 이웃 종교 신자들과 함께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교를 증진하기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사회교리는 역사 속에서 친교의 신학이 되며, 그 안에서 강생하신 말씀은 대화, 기억, 그리고 예언을 통해 계속 현존하시게 됩니다.

레오 13세부터 현재까지 사회교리의 발전

(The development of Social Doctrine from Leo XIII to the present)

28. 교회가 역사 속에 현존하고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을 개괄했으므로, 이제 저는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사회 변혁에 대응해 온 교도권 안에서 이뤄진 사회교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제가 이 가르침의 온전한 풍요로움을 다 풀어낼 수는 없으며, 이 가르침의 근본 원리들은 《간추린 사회교리》에 제시되어 있고 최근의 교황 교도권에 의해 더 깊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선종하신 공경하는 전임자들의 회칙들, 특히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와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발전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문헌이 그러한 전통과의 연속선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필수적인 점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전통 안에서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계시된 진리의 변함없는 핵심이 어떻게 역사적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현대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쇄신된 능력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로 개막된 시기를 시작으로, 이 발전의 중요한 단계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사회교리의 첫 단계들

(The first stages of the Church's Social Doctrine)

29. 우리가 지금 '교회의 사회교리'라 부르는 것은 현대의 자발적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교리는 성경, 교부들, 그리고 중세와 근대의 신학적·법적 발전에 뿌리를 둔 사회 생활에 관한 교회적 성찰의 오랜 전통을 수용하고 구조화한 결실입니다. 비록 '교회의 사회교리'라는 표현은 1950년에 비오 12세께서 처음 쓰셨지만,[23] 이 내용은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와 함께 사회적 가르침의 유기적 체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시대의 '새로운 사태'—자본과 노동의 갈등, 노동 인구 문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변혁들—와 마주했을 때, 레오 13세는 단지 혼란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을 교회의 사목적 사명 실현을 위한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빛과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통합적 비전 안에서 혼란들의 원인과 가능한 해결책들을 비추어 보며 엄격한 식별을 거치게 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접근법을 사회교리의 “지속적인 패러다임”[24]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교회가 역사적 변화에 직면했을 때 사회 현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선언하며,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교회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모범적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의

영원한 내용과 고대 교회의 지혜는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각 시대의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여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리에서 표현을 찾습니다.

30.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였습니다. 이 문헌은 **노동과 노동자의 존엄성을 성찰의 가장 앞머리에** 둡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합니다. 인간이 자본과 이윤보다 우선하는 근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유 재산을 그것이 지닌 불가결한 사회적 역할과 함께 옹호합니다. 노동조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계급 투쟁의 사고방식(멘탈리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 간의 협력 형태들을 제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 11세가 이를 그리스도교 사회 실천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25]로 정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태》에서 인간과 사회 생활에 관한 교회의 고대 지혜는 산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다음 수십 년 동안 더욱 발전할 사회교리를 위한 최초의 거대한 체계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취했습니다. 레오 13세가 기술한 역사적 조건들 중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적어도 두 가지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금융이나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춘 그 어떤 사고방식보다 인간 노동이 우위에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착취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가족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것 사이의 불가분한 연결성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사태》는 **구조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정한 복음회는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킵니다.**

31. 비오 11세의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은 거대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1931년,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맞아 발표되었으며,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있어 한 단계 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 인구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정치 질서의 전체 구조를 포괄하도록 시야를 넓혔습니다. 이 회칙은 소수의 손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고발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훼손하는 무한 경쟁과 집단주의 기획을 모두 비판합니다. 노동자들의 결사 권리를 강력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노동의 성과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도 비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비오 11세는 보조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으며, 이는 사회교리의 초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개인, 가족, 매개 조직 및 지역 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더 높은 수준의 권위체가 수행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기여들과 함께, 자신의 교도권의 다양한 개입들—회칙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Non Abbiamo Bisogno)와 《지극한 근심으로》(Mit Brennender Sorge)에서 《하느님의 구원자》(Divini Redemptoris)에 이르기까지—에서 비오 11세는 사유 재산의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상기시켰고, 인간의 존엄성을 격하시키고 사회 생활을 억압하며 국가를 합당한 가치 이상으로 격상하고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전체주의 형태들을 고발했습니다. 그의 사회 가르침 중 적어도 세 가지 통찰은 오늘날과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즉 불의가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경제적·제도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인식, 권력이 더 중앙집중화

되는 것을 피하면서 결사와 공동체의 구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보조성 원리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의 존엄성, 정당한 보상, 그리고 가족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 사이의 연결입니다.

32. 제2차 세계 대전의 비극적 문맥과 그 뒤를 이은 재건의 해 동안, 비오 12세의 가르침은 사회교리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특히 그의 성탄 라디오 담화들에서 두드러지는데, 여기서 그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인정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틀을 개괄했습니다. 이 담화들에서 교종은 개인과 국가의 이익에 선행하며 국가의 내부 생활과 상호 관계를 모두 규제해야 하는 객관적 원리들의 집합으로 이해된 **자연법에 대한 호소에 기초하여 사회와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비오 12세는 또한 경제 및 사회 질서 내에서 직업적 결사, 노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매개 조직들에 결정적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직화한 사회 형태들을 시민적 균형을 유지하고 공동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건전한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민주주의를 권위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법을 효용이나 힘에 기초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경고하면서, 가장 강한 자의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 질서는 약한 민족들을 억압에 노출시키고 국가들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오 12세는 국가들 간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26]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권력과 증대되는 불평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시대에 세 가지 지침이 특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법이 이익보다 우선해야 할 필요성, 경제적 격차가 긴장과 폭력의 온상이 된다는 인식, 그리고 개인과 국가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결사체 네트워크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사회교리가 글로벌화의 역동성을 해석하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증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을 계속해 제공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기

(The year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33. 교회의 사회 가르침에서 새로운 단계는 성 요한 23세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는 사회 문제의 지구적 차원과 권리의 언어에 더 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에서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빛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차 사명이 성화와 영원한 재화의 선포에 있지만,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모든 진정한 인간적 선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27] 인류에 대한 이러한 통합 비전에 기초하여, 요한 23세는 사회 생활이 시민들과 집단들의 주도권—이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함께 일하도록 불리었다—과 국가의 행동—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조정하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노동자 참여, 그리고 국가들 간 커지는 격차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몇

년 후,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요한 23세는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선의의 사람들을 향해 처음으로 연설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근본적 권리와 의무의 인정에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진리, 정의, 사랑, 자유에 기초한 국제적 수준의 사회 방향을 제안했습니다.[28] **광범위한 갈등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상호의존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그의 사상의 다음과 같은 측면이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그의 호소가 지닌 보편적 관점, 공유된 틀로서의 인간 권리에 대한 그의 참조,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서 영감을 얻은 제도들과 민족들 간의 관계를 요구한다는 그의 확신입니다.

3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세계에서 교회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명 사목헌장인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서 공의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의 구체적 현실을 성찰하는 데 전념하고, 세상에 관여하며, 인류와 가까이 있는 교회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헌은 혼인과 가족, 경제 및 사회 생활, 정치 공동체, 전쟁과 평화라는 큰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 문헌은 경제·제도적 구조가 오직 인간의 통합적 발전에 봉사하고 모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증진하는 한에서만 정의롭다고 주장합니다.[29]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이 공의회 문헌이 지닌 중요성은 주제별 성찰을 위한 지평을 열어 주었다는 점뿐 아니라, 복음과 인간의 전문 지식에 유도되어 역사적 변화들을 해석하도록 초대하는 식별 방법론에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세상과의 대화가 교회를 위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누룩과 같은 복음이 사회 구조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고 더 위대한 인간성을 향한 길을 주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종교 자유 선언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역시 동일한 맥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회는 종교의 자유가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근본 권리임을 인정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받거나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진리를 추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30] 이 원리는 오늘날 매우 관련이 깊으며, 사회교리가 개인을 보호하고 다원적이며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 기준들을 계속 제공합니다.

35. 성 바오로 6세의 교종 재임 기간 동안, 평화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로 축소되지 않고 통합적 인간 발전의 범위 안에서 형태를 취하는 인식이 등장했습니다.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에서 교종은 발전을 덜 인간적 생활 조건에서 더 인간적 생활 조건으로의 이행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을 "각 사람과 모든 사람"[31] 즉 예외 없이 모든 사람과 인간의 모든 차원에 관한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오로 6세는 이렇게 이해한 발전이 실제로는 "평화의 새 이름"[32]이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불의와 갈등의 뿌리를 뽑아내고 모두를 위한 더 존엄한 삶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이 통찰에 안정적 형태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역시 이러한 빛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벌어지는 격차와 모두를 위해 더 인

간적인 생활 조건을 진정으로 증진하는 정책들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36. 《새로운 사태》 발표 80주년을 맞아 작성된 《팔십주년》(Octogesima Adveniens)에서 바오로 6세는 이 관점을 도시화, 새로운 형태의 빈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의문시하는 급격한 문화적 변화들이 특징인 후기 산업 사회에 적용했습니다. 바오로 6세는 비록 복음이 우리 문맥과 매우 다른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선포되고 작성되었으며 살아왔지만, 그 담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니라 믿었습니다.[33] 대신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선택을 인도할 수 있는 인간, 관계, 권위,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인간화하거나 비인간화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해방하거나 억압하는지 알아차리기 위한 기준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를 위해 바오로 6세가 남긴 가장 요구가 많았던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인간 존엄성에 걸맞는 발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평화에 대한 이론적 선포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소외된 곳에서 시작하여, 복음이 그러한 경제적·정치적 구조들—이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는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들이 진정한 “죄의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에 심판을 내리도록 허용해야 합니다.[34] 그래야만 그 어떤 사람이나 민족도 발전 과정에서 소모품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교도권

(The recent Magisterium)

37.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풍요로운 사회적 가르침은 20세기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체제들의 위기와 경제 글로벌화의 시작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에 작성된 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은 노동에 관한 성찰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회칙은 정당한 임금을 전체 사회경제 체제의 정의로움을 검증하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임금이 노동자가 인격체로 취급받는지 아니면 단지 생산 비용으로 취급받는 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35] 노동은 다루어야 할 문제나 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만 간주되지 않고, 인간을 위한 근본적 재화이자 경제 활동 원리이며 전체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자유, 창의성, 그리고 협력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의 문화적·도덕적 고양에 기여합니다.[3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종류의 고용 불안정, 경력 단절, 그리고 자동화는 단순히 효율성 관점에서만 평가해선 안 되며, 노동자의 존엄성, 충분한 보상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과의 관계안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38. 《민족들의 발전》 반포 20주년을 기념하는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을 통해 요한 바오로 2세는 저개발의 고통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민족들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그들의 산업화 과정을 돕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지속적이고 실제로 벌어지는 격차에 주목했습니다.[37] 그는 또한 가장 강한 경제권에 의해 관리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옹호하는 반면 약한 경제권을 억압하는 경제적, 금융적, 상업적 메커니즘들을 고발했고, 그것들이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진지한 윤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38] 이러한 맥락에서 연대성은 개인, 민족, 국가들 사이의 구체적이고 공유된 책임—바로 6세가 제안한 “사랑의 문명”을 지향하는 사회적 우애 또는 정치적 사랑의 한 형태—으로 이해되었습니다.[39]

39. 《새로운 사태》 반포 백주년에 발표된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은 소비에트 체제 붕괴와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의 부상에 대한 성찰을 제공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오 12세의 담화를 되풀이하며 교회가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하며, 권력이 특정 또는 이데올로기적 이익에 동기 부여된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는 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40] 마찬가지로 교회는 시장과 사적 주도권이 이윤 논리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도덕률에 종속되고 연대성 원리에 인도되는 경우만 그것들이 지닌 긍정적 잠재력을 인정합니다.[41] 이는 교회의 사회교리에 특히 유의미한 유산을 더합니다. 노동의 존엄성, 민족들 간 연대성,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이의 연결에 대한 확언은 새로운 형태의 착취, 배제, 그리고 정치적 대의의 위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계속 제공합니다.

40. 자신의 사회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세계화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면서 《민족들의 발전》에서 제시한 발전 개념을 재평가하고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발전이 “모든 이에게 유익하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실제적 성장”[42]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포용적이고 피조물의 한계를 존중하는 경제적 진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빈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례 없는 형태의 배제가 발생하는 반면, 더 가난한 지역들에서는 소수 가문이 비인간적 빈곤 상황과 나란히 소비주의의 풍요 속에 살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44] 게다가 그는 자본과 생산 수단의 거대한 이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체제가 국가들의 정치 권력과 경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44] 이러한 이유로 베네딕토 16세는 경제 활동이 단순히 상업적 사고(思考)의 확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정치 공동체가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했습니다.[45]

41. 베네딕토 16세는 사랑이 항상 진리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사랑을 자신의 분석의 중심에 두었고 이것이 “교회 사회교리의 핵심”[46]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확히 사회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 내에서 도덕적 관련성을 묵살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기여가 지닌 독창성은 발전, 정의, 제도, 그리고 시장이 중립적 현실이 아니라 진리 안의 사랑이 역사적 표현을 찾아야 하는 공간임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증대되는 불평등, 금융 시장의 압박, 환경 위기, 그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 부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능력을 기준으로 모든 발전 모델을 평가하고, 공동선 위에 경제와 정치 관계를 재구축하며, 공적 생활에서 사랑이 지닌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인정하라는 초대로 남아 있습니다.

42.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회적 가르침은 인간의 희망과 취약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복음과의 대화로 이끌어 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기쁨과 희망》의 노선을 따라 전개됩니다. 이 접근법은 그리스도교적 선포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으며 교회가 빈곤층, 이주민,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예살이 희생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특별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노드적 교회—‘함께 걷어가는’ 교회, 복음의 빛으로 시대의 징표를 읽고자 노력하며 자신이 역사를 공유하는 가난한 이들에 의해 복음화되도록 허용하는 교회—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강조 또한 이러한 관점에 부합합니다.[47]

43.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프란치스코는 사회 회칙으로는 처음으로 환경 위기를 중요하고도 체계적으로 다루었으며, 이것이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경제적 위기의 생태적 측면임을 입증했습니다. 통합 생태학에 대한 그의 제안은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결합시켰고,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48]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력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환원시키려는 테크노크라시 패러다임(기술관료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쓰고 버리는 사고방식에 위협을 받는 인간 노동의 옹호, 그리고 세대 간 정의의 필요성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와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옹호함으로써 어느 쪽도 자기 지시적(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44. 사회 구조의 붕괴,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세계 대전”, 개인주의의 글로벌화, 그리고 공동체 유대에 미친 팬데믹의 영향에 직면하여, 프란치스코는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사회적 우애와 보편적 형제애를 선택하는 인류의 꿈을 소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만남의 문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치’, 화해의 길,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땅, 주거, 노동’을 보장하는 세상을 제안했습니다.[49]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에서 그는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노력이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 관계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돌아서며, 그는 예수 성심의 사랑에 대한 가장 참된 응답이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켰고, “우리가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위대한

길은 없다”[50]고 확인했습니다.

신앙의 빛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Interpreting history in the light of faith)

45. 이러한 역사적 개요를 고려할 때, 교회의 사회교리는 책상 위에서 고안된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니라, 개별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각 특정 시대의 ‘새로운 사태’의 빛으로 고유한 기여를 한 인내의 과정의 산물임이 분명합니다. 자기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여, 각 교황은 복음에 따라 역사적 변화들을 해석했고 하나의 동일한 유산이 지닌 서로 다른 측면을 밝혀내었습니다. 곧 인간 존엄성, 노동의 가치, 재화의 보편적 목적, 연대성과 보조성, 피조물에 대한 돌봄, 그리고 평화와 형제애의 중심성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일직선이진 않더라도 조화로운 발전이며, 이는 서로 다른 강조점, 점진적 통찰력, 그리고 때로는 이전의 것과 단절되지 않으면서 그것이 지닌 함의가 성숙하도록 허용하는 관점의 변화로 표시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공유된 원리들과 기준들의 체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이러한 신앙 기반의 해석이 결코 중단되지 않았고 각 세대가 제기하는 도전에 언제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개인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 식별에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교리의 거대한 원리들이 지닌 내적 일관성과 우리 시대를 인도하는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는 이제 그 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려 합니다.

제2장 교회의 사회교리의 토대와 원리

CHAPTER TWO: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46. 교회의 사회교리는 역사, 문화, 그리고 과학과 대화하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사회교리는 변하지 않는 일련의 진리의 핵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교리는 오늘날에도 신자들의 개인적·사회적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 형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특히 인간 개인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의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교회의 사회교리 토대와 원리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오늘날 우리가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원리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가 상호 연관되고 보완되는 방식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원리들을 반드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7. 이러한 성찰을 제안하면서 제가 품은 희망은, 무엇보다 평신도들과 선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족 관계, 노동, 그리고 사회 참여 속에서 앞에 언급한 원리들을 실천해야 하는 각자의 의무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삶의 구체적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학술 기관들과 대학교들이 이 원리들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혁명을 다루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원리들을 적용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신학적·철학적 탐구는 교회의 사목 여정을 한층 더 깊이 탐색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신자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 사회의 삶을 더 정의롭고 형제애 넘치게 만들려는 교도권의 과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교리의 토대(The foundations of Social Doctrine)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인격(The human person: image of the Triune God)

48. 교회의 사회교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느님의 신비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적 친교로서, 상호 자기 내어줌과 세상과의 나눔에서 표현되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공의회가 상기시켰듯이, 인간 개인은 하느님과의 친교로 불리었으며,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52]. 참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소명은 사랑을 받고 또 나누는 삼위일체의 역동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9. 사랑이신 하느님 신비가 사회교리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강생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가장 구체적인 표현을 봅니다. 하느님 아드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인간의 삶을 취하셨으며, 성부와 성령과 당신을 결합하는 사랑을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인간의 신비가 참으로 밝아지는 데”[53],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은 온전히 자유롭고, 타인에 열려 있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온전한 자기 내어줌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와 함께 시작된 거대한 쇄신 과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남녀를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작용에 인도되는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사회적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54].

50.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의 중심에는 남녀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분의 모습(창세 1,26-27 참조)으로 창조되었다는 거대한 성경적 확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창조된 모든 인간 개인은 하느님과 타인과 그리고 피조물과 친교를 맺도록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인간 존엄성은 개인의 능력이나 부, 사회적 위치에 달려 있지 않으며, 본인이 행한 옳고 그른 선택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엄

성은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느님께서 부여하셨고, 각 개인에 선행하고 이를 초월하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 개인은 언제나 “교회의 길”[55]이자 모든 진정한 통합적 인간 발전 여정의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56].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The equal dignity of all human beings)

51.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그 고유함, 그리고 양심의 여정에 마땅히 바쳐야 할 존중에 대한 이러한 고양된 감각은 분명 현대 문화가 이룩한 긍정적인 성취 중 하나를 대변합니다”[57]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모든 사람의 숭고한 존엄성,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조되는 인정을 주목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58].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가치 평가의 성장이 오늘날 세계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나 매우 강력한 이익 집단들의 압력에 가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가운데서도 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한다고 암시하며,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이들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를 특히 교활한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사용하고 착취할 자원으로 전락해 버리며, 결코 도구화되어선 안 되는 그 자체로 합당한 목적으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체의 가치는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생산하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에 적용되는 권리가 존재하며, 그 어떤 인간 권력도 이를 합법적으로 부인하거나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59].

52. 우리가 존엄성을 말할 때, 언제나 이 단어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도덕적 존엄성, 즉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다스리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다른 때는 사회적 존엄성, 즉 개인의 생활 조건과 사회로부터 받는 구체적 존중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존적 존엄성, 즉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존엄성의 이러한 측면들은 고양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 외에도, 한층 더 깊고 중요한 수준인 존재론적 존엄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느님이 바라시고 창조하셨으며 사랑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에 속하는 존엄성입니다[60]. 그 어떤 죄나 실패, 굴욕이나 소외도 하느님께서 원하셨고 삶으로 부르신 인간 생명의 심오한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61].

53. 그러므로 각 개인의 근본적 존엄성은 획득하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의 선언 《무한한 존엄성》(Dignitas Infinita)은 이 주제에 관한 교회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제공합니다. “모든 인간 개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양도할 수 없는 것에 바탕을 둔 무한한 존엄성을 소유하며, 이는 개인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상태, 또는 상황 안에서, 그리고 이를 넘어서도 만연합니다”[62]. 즉, 언제나 그리고 예외 없이 그러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진술했듯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무한하다고 기술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당신과의 우정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이며[63], 둘째는 그분 사랑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끝없이 찾아 헤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지워버리거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권의 지고한 가치(The supreme value of human rights)

54. 교회는 “인권을 식별하고 선포하려는 운동이 인간 존엄성의 피할 수 없는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려는 가장 유의미한 시도 중 하나”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64]. 이와 관련하여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시대 인간 양심의 가장 고귀한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65]. 그것은 “인류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에서 이정표”입니다[66].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인간 권리는 개인에게 외부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불린 내재적 인간 존엄성의 표현입니다.

55. 인간 권리는 “인간 개인과 인간 존엄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습니다 [67]. 결과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68]. 인권이 모든 남녀의 공통된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와 법적 효과를 지니며, “만약 동시에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 곧 모든 이에 의한,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선포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69].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 첫째는 잉태에서부터 자연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대한 권리이며[70], 이것이 없다면 그 어떤 다른 권리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근본 권리가 부인될 때—낙태 유도, 무고한 이들의 살해, 그리고 안락사의 경우처럼—우리는 교회가 중대하게 잘못되었다고 간주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71].

56.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권의 보호가 특히 심각한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진보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침해와 함께 계속되는 동안, 이러한 권리들이 순전히 형식적 의미로만 선언될 위험입니다. 둘째는 실제로 첫 번째 위험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결정과 법률을 지탱해 줄 견고한 토대에 대한 탐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들이 지닌 보편성의 토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입니다[72].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마지막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성이 인간 본성을 진지하게 탐구할 때, 가치들이 인간 본성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분은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탐구 과업이 버려진다면, 오늘날 손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권리들이 미래에 권력을 쥔 이들에 의해 의문시되거나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쩌면 두려

움에 떨어거나 조종을 당하는 인구로부터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합의를 얻어낸 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73].

57. 모든 인간 개인과 그들의 권리가 지닌 가치에 대한 더 큰 인식과 함께,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 즉 여성들의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동등하고 진정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배제, 학대, 폭력 상황을 견뎌내는 여성들은 종종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능력이 더 낮기 때문에 이중으로 빈곤하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74]. 그러므로 남녀가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단순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것이 법률, 고용 기회, 교육, 사회·정치적 책임, 그리고 사회가 여성의 기여에 귀를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같은 구체적인 결정들 속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격차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사회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58.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며, 각 사람과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족과 더불어 중요합니다.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 하에 전개되는 사회 운동, 공동체 이데올로기, 그리고 거대한 정치 선언들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 남녀 개인의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일자리나 보호, 또는 기초 필수품에 대한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개인의 자유나 사적 기업을 극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회교리 원리들(The principles of Social Doctrine)

공동선 원리 (The principle of the common good)

59. 모든 남녀가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어떤 인간 권력도 배신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 곧 우리의 경제적·정치적 선택과 우리 도시의 구성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부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교리의 첫 번째 주요 원리가 도출되는데, 바로 공동선입니다. 우리는 이를 모든 개인 안에서 인정된 존엄성의 사회적 표현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교회가 언제나 수호해야 할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을 언급했을 때, 그분은 그 안에 “공동선의 증진”을 포함시켰습니다[75].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이익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서고 본인이 가진 능력의 한도 안에서 공동선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생명 증진과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6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동선이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 온전하고 더 용이하게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생활 조건들의 총체”로 이루어진다고 확인했습니다[76].

이 정의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차적 참조점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공동선은 조건들이나 제도들의 단순한 목록으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이익의 총합이 아니며, 그들의 특수한 이익의 교집합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에 속하는 더 위대한 선이며, 오직 우리의 집단적 노력으로만 성취되고 길러지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참된 선의 선택 안에서 완성도를 갖게 되듯, 사회적 실천은 이 공유된 선을 향해 질서 지워질 때 그 충만함에 도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77].

61.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체가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78]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개인적 이익의 단순한 합은 인류 가족 전체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역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79]. 실제로 타인을 돌보지 않은 채 단순히 스스로의 진전만 추구하는 것이 모두의 선에 기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선이 지닌 내재적이고 구체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공동선은 사람을 연결하고 충격을 주는 사회적 선의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상호의존성”[80]의 결과입니다. 공동선은 다양한 행동, 주도권, 노력, 그리고 결정들을 연결하는 상호 작용과 상호 영향력의 결과인 “플러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의 재화를 단순 합산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초월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플러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62. 개인이 모여 단순한 집합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공적 사물(res publica)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음을 배우는 살아있는 현실로서 민족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공동선 추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통합을 향한 열망과, 평화롭고 다면적인 만남의 문화 성장을 통해 이를 성취하려는 자발성을 요구하는 느리고도 성실한 노력”을 통해 자기 민족을 건설하는 데 기여합니다[81].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은 공유 비전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많은 이데올로기적·실천적 차이점이 존재하고, 상이한 이익과 빈번한 불일치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그것이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인 일련의 기본적 합의들을 수립하기 위한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63. 모든 이의 기여를 통해 공동선이 추구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응집, 일치, 그리고 적절한 조직화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질적 관점에서, 이는 공공 당국이 소외되기 가장 쉬운 이들을 뒤에 남겨두지 않으면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며 “서로 다른 부문별 이익들을 정의의 요구 사항과 조화시켜야 하는”[82] 세심한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가 장기 안목을 버리고 단기 계산이나 소모적 양극화로 스스로를 축소시킬 때, 공동선이라는 말은 신뢰성을 잃고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은 커지게 됩니다.

64. 이는 국제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들 간 분열이 확대됨에 따라 대립과

침략의 사고(思考)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더 일치되고 형제애 넘치는 세상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새롭고 고통스러운 후퇴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 가족 전체를 위한 더 정의로운 발전을 향한 공유 여정을 말하는 것은 “광기처럼 들립니다”[83].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민족들과 국가들이 지닌 정당한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구적 공동선을 수호할 수 있는 협력 방식과 더 효과적인 국제 제도들을 구상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84]. 실제로 공동선의 증진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나라들의 가족에게 자신들의 고유한 특질을 기여할 권리에 대한 존중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한 국가를 없애거나 종속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나 계획도 중대하게 부도덕하며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리

(The principle of the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

65. “공동선이 지닌 수많은 함의 중에도,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리는 즉각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85]. 무엇보다 이 원리는 지구의 재화들—토양, 물, 공기, 그리고 자연자원—이 하느님에 의해 모든 이의 삶을 지탱하도록 인류 가족 전체에 주어졌으며, 모든 사람이 현재와 미래 모두에 그러한 재화를 사용할 천부적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하느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제외하거나 우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구성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온 지구를 인류 전체에 주셨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86].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오직 선택된 소수에만 돌아가도록 이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 계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87]. 오늘날 우리는 이 보편적 목적이 물질적 재화뿐 아니라 비물질적·문화적 재화에도 적용됨을 인정하도록 불리고 있습니다.

66. 분명 사유 재산권이 존재하며, 이는 그 자체의 구체적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사유 재산은 언제나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이러한 종속은 사회적 행위의 황금률이자 “전체 윤리 및 사회 질서의 제1원리”입니다[88]. 교회 전통에서 재산은 재화가 공동선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89], 그것이 지닌 사회적 기능은 한낱 신학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선 안 되며 이미 성경과 교부들의 저술에 현존하는 교회의 교리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황 프란치스코는 연대성이 가장 온전한 의미로 실현될 때,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도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90].

67. 오늘날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예정된 재화 중에는 특히, 알고리즘, 디지털 플랫폼, 기술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부가 지식과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맥락에서, 이러한 재화들이 적절한 형태의

나눔과 접근 없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모순되는 새로운 불균형이 창출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포함된 이들과 배제된 이들 사이, 곧 디지털 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과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이들 사이의 격차를 벌립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과 가난한 이들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피조물의 재화 사용과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환경을 존중하고, 낭비를 피하며,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보조성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68. 보조성 원리는 존엄성과 공동선에 관한 우리의 성찰을 인도해 온 바로 그 동일한 인간 개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모든 남녀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고 사회 형성에 기여하도록 불리었다면, 사회 제도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보조성을 개인, 가족, 지역 공동체, 그리고 매개 조직들의 역할이 더 높은 수준의 권위체에 의해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 참조합니다.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제도들은 하위 수준의 실재들이 지닌 자유와 창의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하고, 그들이 공동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여를 조정해야 합니다[91].

69. 레오 13세와 현대 사회 가르침의 시작과 함께, 교회는 개인도 가족도 국가에 흡수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선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92].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관점을 채택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치 공동체가 시민 사회에 봉사하는 위치에 있으며 국가가 매개 조직들과 사회 제도들의 책임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개입하여 공동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93]. 보조성은 국가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행동을 인도합니다. 참으로 공공의 개입은 정확히 모든 사회적 행위자가 억압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 내에서 개인, 가족, 결사체, 그리고 매개 조직들이 대체되거나 한낱 조력자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94].

70. 이 원리는 사회 생활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가부장적(온정주의적)이거나 복지 기반의 관리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고무하며, 도리어 시민 주도권에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와 공동선의 봉사 속에서 유대를 맺고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시민 사회 안에서 공유된 책임의 문화를 증진합니다. 보조성 원리에 따라, 결정들은 관련된 개인들과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내려지며, 이로써 공동체 생활을 증진하고 사람들이 이미 내려진 결정에 직면하는 상황을 피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결사체, 지역 공동체, 자원봉사 조직, 그리고 이른바 ‘제3섹터’에 있는 이들이 인정받고 지지받을 때, 사회 생활은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기 쉬워지며, 서비스는

실제 필요에 맞게 더 조율되고, 해결책은 각 사람의 존엄성을 더 창의적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됩니다[95].

71. 보조성 원리는 디지털 혁명의 맥락에 특히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수준은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 조건들에 대해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경제적·기술적 행위자들입니다. 전문 지식, 데이터,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는 이 수준은 접근 조건, 투명성 규칙, 상호 작용 형태, 그리고 심지어 경제 기회까지 정의하는 기업들과 플랫폼들을 포함합니다. **보조성 원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위로부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유의미한 형태의 참여(독립적 점검,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데이터에 대한 공평한 접근, 구제 수단 마련 포함)와 함께 공동선을 향해 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96].**

72.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과 초국가적 제도들은 고용, 서비스 접근, 데이터 관리, 디지털 환경과 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의 식별에 지역 공동체, 매개 조직, 학교, 대학교, 종교 제도, 그리고 결사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과 효과적 안전장치를 보장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경제 흐름과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결정들,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소수 행위자가 이러한 과정들을 스스로 독단하게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글로벌 공동체의 다양한 수준을 존중하고 그들이 공동선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협력 형태들을 구축해야 합니다[97].

연대성 원리 (The principle of solidarity)

73. 공동선과 보조성을 고찰했으므로, 이제 저는 연대성 원리에 대해 성찰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앙에서 생성된 인간 개인에 대한 비전, 곧 모든 인간은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자신을 타인과, 구체적인 민족들과, 그리고 피조물과 묶어주는 관계망의 일부라는 비전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성 바오로 6세는 연대성, 정의, 그리고 사랑의 의무가 개인들과 인류를 일치시키는 인간적·초자연적 형제적 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았습니다[98]. 형제애는 신자들의 한낱 열망이 아니라, 공동체적 선택과 노력에서 구체화해야 할 사회·정치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연대성은 각 개인의 미래가 모두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구체적 인식입니다. **참으로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지 못합니다”[99].** 이로써 **보조성과 연대성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이 분명해집니다.** 보조성이 연대성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특수한 이익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연대성이 보조성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은 책임을 기르지 않는 일종의 복지 형태로 퇴행합니다[100]. 이 상호 연결성은 또한 진정한 참여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대성은 각 사람이 개인으로서나 집단적으로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타인과 관여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공의 결정과 선택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유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선이 성취

되도록 실제로 책임을 맡음으로써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때 표현됩니다.

74.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일종의 ‘사실상의 연대성’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글로벌 경제와 커뮤니케이션은 한 장소의 사건이 광범위한 충격을 지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망은 오직 그것이 의식적 선택이 될 때만 단어 본연의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연대성을 구성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 현실을 하나의 부르심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들이며,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역량의 한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의 삶과 상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성은 우리가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게 남아 있지 않기로 결정하고, 도리어 피할 수 없는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유대들을 나눔, 협력, 그리고 상호 돌봄의 길로 변화시키며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디어를 포용할 때 정확히 발휘됩니다[101].

75.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연대성이 원리인 동시에 덕(德)임을 강조합니다. 원리로서 연대성은 개인, 집단, 그리고 민족들 간 관계의 객관적 질서를 표현하며, 각 사람의 선이 타인의 선에 의존한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가리킵니다. 덕으로서의 연대성은 특별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결의”를 요구합니다[102]. 교황 프란치스코는 연대성이 단순한 개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창출하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라 언급하였습니다[103]. 이러한 이유로 연대성은 소박하고 공유된 삶의 방식, 미래에 타인을 위한 기회들을 창출하기 위해 당장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능력, 그리고 습관과 특권에 기꺼이 도전하려는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소비와 기술 사용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며, 이것들이 타인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 그러합니다.

76. 사람들, 공동체들, 그리고 국가들 간 한층 더 가까운 연결로 표현되는 세상에서, 연대성은 글로벌 차원도 취합니다. 베네딕토 16세는 발전, 정의,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사이의 연결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진정한 발전이 연대성과 세대 간 정의를 요구함은 물론[104], 우리가 자연환경과 맺는 유대들에 대한 인식도 요구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책임은 디지털 및 정보 인프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생태계’ 역시 보존될 수 있고 착취당할 수도 있으며, 공유될 수도 독점될 수도 있습니다. 연대성은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결정이 소수를 위한 당장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미래 세대에 미칠 충격까지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 정의 원리(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77.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사회 정의는 예수를 따르고 복음에 충실히 머무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루카 4,18), 비천한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마태 25,31-46 참조). 이처럼 그분은 정의가 형제애에서 비롯하고 그 안에서 완수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접근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구체적 관점에서 하느님 및 우리 형제자매와 맺는 관계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사회 구조가 구상되고 조직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제도가 인간 개인과 그 존엄성에 봉사하도록 불리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105]. 그러므로 사회 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가 모든 이로 하여금,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이 그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은 채 진정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량을 통해 성격이 분명해 집니다.

78. 최근의 교도권은 사회 정의가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개인적·사회적 선택을 반드시 인도해야 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말했으며[106], 교황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낳는 “버리는 문화”를 고발하였습니다[107].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정의는 도심이 나 실존적 변두리에 살아가는 빈곤층, 이주민, 난민, 국내 실향민, 폭력 희생자,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 같은 가장 취약한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79. ‘사회 정의’라는 아이디어는 불의가 오직 개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거의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구조, 메커니즘, 그리고 경제적·문화적 체제들로부터도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느님 뜻에 반대되며 개인적·사회적 회개의 헌신을 요구하는 죄의 구조들에 대해 말하였습니다[108].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는 단지 자원의 더 공정한 분배나 현재 불의의 교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가치의 차원 또한 취합니다. 그것은 전쟁, 식민주의, 인종이나 성차별, 민족 전체에 자행된 폭력과 착취 등 과거에 겪은 잘못된 일들로 인해 초래된 상처들을 고려하면서, 부서진 유대들을 꿰매고 배제되었던 이들을 다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무시당해 온 이들에게 존엄성과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것, 집단 기억의 치유 과정을 고무하는 것, 차별적 법률과 관행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입은 상처의 결과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구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80. 오늘날 사회 정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형성된 환경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확산은 우리가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놓고 있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배제와 자유

박탈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곧 개인들과 민족들이 기초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 공동체들이 침범하는 감시망에 노출되는 것,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의해 사회 집단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의로운 사회 질서는 모든 이에게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사회의 가장 어리고 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며, 증오와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고, 데이터와 기술 사용을 공공의 감독하에 두어 인도하는 원리가 오직 이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모든 이의 공동선이 되게 합니다.

81. 오늘날 사회 정의의 시금석은 이주민, 난민, 그리고 빈곤, 폭력, 기후 변화, 환경 재해로 인해 강제로 이주하게 된 이들을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회가 지닌 정의감이 두려움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형제애의 정신으로 움직이는지를 드러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주민들을 한낱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여정 중에 있는 하느님 백성의 살아있는 모상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하였습니다[109]. 그들은 존엄성, 자원, 그리고 꿈을 지닌 사람들이며, 존중을 가득 담아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이 되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사회 정의는 적어도 두 가지 상호 보완적 헌신을 수반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존엄한 조건, 그리고 통합을 향한 진정한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강제로 떠나야 했던 이들의 정당한 희망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경제 불의 및 기후 위기와 연결된 근본 원인을 다룸으로써,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 속에서 고국에 남아 있을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존중될 때, 이주는 민족들 사이의 만남과 상호 풍요로움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적 인간 발전(Integral human development)

82. 자신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에서 바오로 6세는 발전이 오직 ‘통합적’일 때만, 즉 그것이 ‘각 사람과 전체 사람의 발전을 고무할’ 수 있을 때만 진정성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110]. 그 뒤를 이은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사회교리는 고귀한 원리들—인간 존엄성,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그리고 사회 정의—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가리키기 위해 이 표현을 재차 채택하고 성찰해 왔습니다. ‘통합적 인간 발전’을 통해, 우리는 개인과 민족의 성장이 존재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고 다가올 세대에게도 미래를 열어 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83.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발전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과 민족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속 상태에 머물거나 필요한 재화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발전은 재화의 축적 대신 사람들을 중심에 둘 때,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민족들과도 관련이 될 때 진정한

로 인간 중심적이 됩니다. 정의는 사회의 권리와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포함합니다. 발전은 만약 그것이 일부를 위해 소비를 늘리는 반면 타인에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거나, 전체 지역을 하위 역할로 강등시켜 그들이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진정으로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다[111]. 발전은 그것이 경제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집, 민족들의 다양성,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영적, 문화적, 도덕적, 그리고 관계적 차원 속에서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을 때 통합적입니다[112].

84. 오늘날 통합적 인간 발전 개념은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차원이 된 통합 생태학 평가를 위한 기준점입니다. 실제로 발전의 질은 사람들을 향한 정의와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을 통합하는 역량, 그리고 존엄한 생활 조건, 필요한 재화에 대한 접근, 정의로운 사회 관계, 피조물에 대한 돌봄,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증진하는 역량으로 측정됩니다. 생태계를 퇴화시키거나,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공동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우리를 뒤따를 이들의 생활 조건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일부의 복지만 증대시키는 것은 진정한 진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85. 이러한 빛으로 바라볼 때, 통합적 인간 발전은 디지털 혁명이 초래한 변화들을 포함하여 우리 시대의 변화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혁신들은 중립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여와 정의를 고무할 수 있고 반대로 불평등, 통제, 그리고 배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평가되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 진정으로 개인들과 민족들이 우리 공동의 집과 미래 세대를 존중하면서 한층 더 인간 중심적이고 형제애 넘치게 되도록 돕고 있는가? 사회교리 원리들이 뒤이어 올 장(章)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들에 관해 구체적인 식별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찰(An examen for the Church)

결론적으로, 저는 저의 마음에 특히 가까이 있는 한 가지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회교리는 단지 사회를 향해 발신되는 담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항상 이 장에서 개괄된 원리들이 특히 교회 자체 구조에도 적용되도록 보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친교의 집이자 학교인 교회를 향한 양심 성찰**이기도 합니다. 교회적 맥락에서, 공동선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봉사 속 사명을 향한 시노드적 접근 형식을 취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시노달리 타스와 사명의 공동체적·역사적 주체”입니다[113]. 이는 결정이 내려지고 책임이 행사되는 방식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시노드 최종 문헌은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평가의 문화를 선교적 변혁을 위한 핵심 실천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114].

87.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보조성은 거버넌스(협치)와 사목 활동을 위한 인도 원리

가 됩니다. 보조성은 신자들과 매개하는 교회 조직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그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 카리스마와 기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복음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그 어떤 형태의 가부장주의도 피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실질적 관점에서, 세례받은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사명 수행에서 공동 책임은 형해화된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참여 기구들을 통해 실현됩니다[115].

88.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연대성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원천을 두며 성체성사로 자양분을 얻습니다. 연대성은 신앙과 성사 안의 친교로부터 나타납니다. 세례와 견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일치시켜, 우리가 한 몸과 한 영,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게 합니다(에페 4,4; 사도 4,32 참조). 일치의 성사인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의식을 길러주고 우리에게 나누는 법을 가르칩니다. 교회 내에 현존하는 다양한 감수성과 각 사람을 활기치게 만드는 강한 확신들은, 만약 그것들이 일치하는 받는 선물인 동시에 완수해야 할 책임이라는 확실성 안에 닳을 내리고 있을 때 풍요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89. 교회 안에서 정의를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관계와 구조들을 불평등, 투명성 부족, 그리고 권력 남용을 낳는 왜곡으로부터 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적, 경제적, 제도적, 성적, 권력 기반 남용은 물론 양심 남용의 희생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의를 향한 여정의 온전한 일부이며, 여기에는 입힌 해를 인정하는 것, 정당한 배상,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권력은 친교와 사명을 위한 봉사를 위해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를 위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직무는 성사 안에서 기념되고 살아지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시노드적 방식의 채택을 통해서뿐 아니라 재화의 구체적 나눔 속에서도 표현됩니다. 초기 교회의 모범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궁핍하지 않도록(사도 4,34 참조), 그리고 재화의 관리가 가장 가난한 이들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상 책임 행사에 대한 정기 평가는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사명 수행을 향해 조율된 배움과 교정의 도구로 장려되어야 합니다[116]. 오직 우리가 성령의 작용에 열려 있는 한에서만 사회교리의 이러한 원리들이 교회 생활에 육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공동의 책임과 형제애와 함께 공동선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적인 가능성임을 사회를 향해 신뢰할 수 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117].

제3장 기술과 지배. 인공지능의 약속에 비추어 본 인간의 위대함

CHAPTER THREE: TECHNOLOGY AND DOMINANCE. THE GRANDEUR OF HUMANITY IN LIGHT OF THE PROMISES OF AI

90. 사회교리를 비추는 원리들을 상기했으므로, 이제 저는 오늘날 우리 삶을 깊이 규정하

고 있는 몇 가지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동반하는 성경적 이미지는 바로 **건축 프로젝트 이미지**입니다. 한편에는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계획을 따르는 집단적 노력인 바벨탑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공동 책임 프로젝트로서 한 조각 한 조각 재건되는 예루살렘의 폐허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건축 현장’을 성찰하며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짓고 있는가?” 기술 발전이 언어, 관계, 제도, 그리고 권력의 형태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인간의 위대함을 수호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선택해야 하며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여타 신기술들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1. 저는 복음의 빛으로 사회적 관계를 살아가는 구체적 방식이 단 한 번에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맡겨진 과업으로 남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는 하느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고,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민족들과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하느님 나라의 요구에 더 부합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현재의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더 인간적이고 형제애 넘치는 사회를 건설할 때 자신들의 책임을 단호하게 받아들이라고 격려합니다.

기술관료적 패러다임과 디지털 권력

(The technocratic paradigm and digital power)

92.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우리의 세계화된 세상 속에 확산되는 **기술관료 패러다임(technocratic paradigm)의 지배력**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성, 통제, 그리고 이윤의 논리만으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결정들을 형성하게 만드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하나의 도구가 아님을 명확히 해줍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때, 기술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지시하기 시작하며, 피조물을 착취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을 오직 더 큰 효율성만을 향해 달려가는 시스템 속의 한낱 톱니바퀴로 격하시키게 됩니다.

93. 이 패러다임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 인지 과학, 나노 기술, 로봇 공학, 그리고 바이오 기술의 확장으로 자양분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였습니다. 그 자체로 이러한 혁신들은 통합적 인간 발전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크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것들이 지닌 힘 때문에, **이 혁신들은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의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영적, 윤리적, 정치적 틀을 요구합니다.** 더 큰 권력이 반드시 더 나은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점에서 로마노 가르디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인은 권력을 잘 사용할 만큼 훈련받지 못했다.”

94. 인류가 스스로 이룩한 성취의 희생자가 될 위험을 성 바오로 6세는 이미 명확히 인식하였는데, 그분은 “가장 비범한 과학적 진보, 가장 놀라운 기술적 업적,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경제 성장이 진정한 도덕적·사회적 진보와 동반하지 않는다면, 긴 안목에서 인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적 진보는—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도—이를 인도하는 인간학적 비전과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세심한 식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기술 발전이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사회적 진보 없이 이뤄진다면, 그 결과는 인간성의 성장은 없는 수단의 증가, 즉 ‘더 많이 존재함’(being more)이 없는 ‘더 많이 가짐’(having more)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개인들이 주로 그들이 생산해 내는 결과에 따라 평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95. 여기서 우리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또 다른 결정적 측면**을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문맥 내 많은 사례에서 플랫폼,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권력에 대한 통제는 국가에 있지 않고, 거대한 경제적·기술적 행위자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실체들은 접근 조건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가시적 규칙을 결정하며, 참여 가능성 자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될 때, 이 힘은 불투명해지고 공공의 감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종속, 배제, 조종, 그리고 불평등을 낳는 왜곡된 형태의 발전을 초래할 위험성을 높입니다.

96. 디지털 세계의 이러한 권력 집중에 직면하여, 이 새로운 상황에서 **심판과 식별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사회교리의 숭고한 원리들**입니다. 곧 인간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그리고 사회 정의입니다. 이 원리들은 디지털 인프라와 알고리즘 권력이 진정으로 참여와 책임을 고무하는지,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지,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모두의 선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것이 열어주는 가능성과 그것이 수반하는 위험들을 더 자세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97. 이미 교회적 맥락에서도 권위 있는 기여들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관련 문헌의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의도는 아닙니다. 저는 기술 혁신을 인도하고 그것의 사용과 한계를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본연의 양심과 자유를 지닌 인간 지능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덕적·사회적 식별에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그치려 합니다.

98. 이 논의에 앞서 **두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첫째, 이 시스템들이 발전하는 눈부신 속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관한 그 어떤 선언도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그것들을 설계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것들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 부분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구축’하기보다 더 많이 ‘배양’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설계하지 않고 대신 그 지능이 ‘성장’하는 틀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들의 내부 표현이나 계산 과정 같은 근본적인 과학적 측면은 현재로서는 미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현상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적 연구의 심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영적 식별의 실천입니다.

99. 인공지능에 대해 단 하나의 포괄적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지능’을 인간 지능과 동일시하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단지 **인간 지능의 특정 기능들을 모방할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스템들은 종종 속도와 계산 능력 면에서 인간 지능을 능가해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전적으로 데이터 처리에 매여 있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은 **경험하지 않으며, 몸을 소유하지 않고,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관계를 통해 성숙하지 않고, 내면의 사랑, 노동, 우정, 혹은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선과 악을 심판하지 않고, 상황의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덕적 양심을 지니고 있지도 않습니다. 언어, 행동, 분석 기술을 모방하거나 심지어 공감과 이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지만, 인간이 지혜 속에서 성장하도록 이끄는 감정적, 관계적, 영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비록 이 도구들이 ‘학습’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묘사될 때도, 그 방식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것은 삶이 형성하도록 자신을 허용하고 선택, 실수, 용서, 그리고 충실함을 통해 시간을 거치며 성장하는 이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와 피드백에 기초한 통계적 적응의 한 형태**이며, 이는 매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내적 성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소중한 도구이나 경각심이 요구됨

(A valuable tool that requires vigilance)

100. 지금까지 말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왜 인공지능이 소중한 도구인 동시에 그것이 신중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의 사적 사용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이는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들과 빠른 확산에 얽힌 위험들 모두에 대한 성찰을 점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에 있어, 특히 세 가지 측면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결과를 얻는 것의 용이함, 객관성이라는 인상, 그리고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정보, 복잡한 분석,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실질적 도움에 접근할 수 있는 속도와 단순함은 의심의 여지 없이 생활을 더 쉽게 해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과 기성품 답변에 대한 탐구를 부추길 수 있으며, 개인의 창의성과 심판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응답과 제안들이 지닌 외견상의 객관성은, 그것들이 자신을 설계하고 훈련시킨 이들의 문화

적 가설들을—그것들이 지닌 장점과 한계 모두와 함께—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언의 말, 공감, 우정, 심지어 사랑 같은 긍정적인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인공적 모방은 매력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별력이 부족한 사용자들에게는 그것이 오도할 수 있으며, 실제 인격적 주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이 시뮬레이션 될 때, 그것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겉모습만 연결할 뿐입니다.** 돌봄이나 지지를 인공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실제 **관계와 정서적 유대가 결여된 문맥**으로 들어갈 때 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데 있다기 보다,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하고픈 갈망 자체를 점진적으로 잃게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101. 사회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많은 부문과 다각적 수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커뮤니케이션, 관리, 그리고 통제안에서입니다. 효율성 면에서 이득과 특정 서비스들을 개선할 잠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빠르게 그리고 비판 없이 채택하는 것은 환경적 충격을 간과하는 경향을 포함해 일련의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물을 요구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자연 자원에 무거운 부담을 줍니다.** 그것들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 컴퓨팅 권력과 저장 용량의 필요성 역시 커지며, 이는 거대한 기계 네트워크, 케이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인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 충격을 줄이고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지속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협치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nd the governance of AI)

102. 인공지능의 사용은 결코 순전히 기술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은 **권리, 기회, 지위, 그리고 자유 문제를 건드립니다.** 고용, 신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혹은 심지어 개인 평판에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결정이 ‘연민, 자비,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알지 못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전적으로 위임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보 조작이나 사생활 침해같이 분명하게 해로운 사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미묘한 위험도 존재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제시할 때, 그것들은 결국 자신들의 설계자와 개발자들의 고정관념이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반영하고 강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103. 참으로 그 심판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관행 속의 알

고리즘에 누가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할 권력을 위탁하는 것은 **인간 가능성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과업을 양도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이들을 향한 공감뿐 아니라—이는 결국 시뮬레이션될 수 있습니다—정치적 책임 또한 상실됩니다. 취약한 이들의 배제는 중립성과 객관성이라는 베니어판(겉포장)으로 가려지며, 이를 거슬러 반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의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지나가며, 한낱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정치 행동으로 이해된 연민, 자비, 그리고 용서는 시야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104. 이로부터 간단하지만 강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기술적 도구는 그것이 무엇을 측정하고 무시하며 최적화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통해 선택과 우선순위들을 육화합니다**. 만약 어떤 시스템이 일부의 삶을 덜 가치 있게 취급하거나 이의 제기 가능성 없이 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에 모순되는 기준들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잘 사용해야 할’ 도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리적 식별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좋은 목적으로 쓰는지 나쁜 목적으로 쓰는지 묻는 데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데이터와 모델 속에 인간 개인과 사회에 관한 어떤 비전이 내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05.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동선에 진정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이들부터 구체적인 결정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의존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내부 과정들이 불투명하여, 책임을 묻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책무성(accountability)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데, 이는 결정에 대해 누가 ‘설명’해야 하는지 식별하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도전하고 초래된 해악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106. 인공지능을 채택할 때 신중함, 엄격한 평가, 그리고 때로는 더 느린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 진보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인류 가족을 향한 책임 있는 돌봄의 실천입니다. 기술 성장의 속도와 그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의식, 규범, 안전장치, 그리고 제도들의 더 느린 발전 사이에 빈번하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필요성은 더 시급합니다. 추상적 수준에서 윤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고한 법적 틀, 독립적 감독, 정보를 소유한 사용자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오직 기술관료적 사고가 지배할 것이며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컴퓨팅 권력을 통제하는 이들이 형성한 규칙들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107. 우리는 관련된 윤리적 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것들을 사회 정의의 공유된

기준에 종속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채, 기계들의 도덕화—이른바 인간 가치와 인공지능의 ‘정렬’(alignment)—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도덕적 비전을 강요할 것이며, 이는 이 시스템들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도덕성을 소수가 결정한다면, 더 도덕적인 인공지능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가속화할 때 일을 늦출 수 있고, 공동체들이 여전히 참여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치의 관여입니다.

108. 사실 모든 중대한 기술적 전환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경제적 자원, 전문 지식,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이미 **소유한 이들의 권력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선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데, 왜냐하면 작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보와 소비 패턴을 형성하고, 민주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역동성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여 민족들 사이의 사회 정의와 연대성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사용이, 특히 그것이 공공재와 근본 권리를 건드릴 때 참여와 보조성에 뿌리를 둔 명확한 기준과 효과적 감독이 이끌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체와 매개 조직들은 다른 곳에서 내려진 결정의 수동적 수용자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식별과 감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데이터 소유권은 단지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이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적절히 규제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많은 기여자의 산물이며 소수 선택된 이들에게 팔아넘기거나 위탁되어야 할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집단의 재화에 대해 이미 제안했던 것처럼, 참여 정신으로 데이터를 공공의 혹은 공유된 재화로 관리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9. 사회교리 원리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계산 자원, 그리고 규제적 영향력이 소수의 손에 달려 있는 세상에서 공동선을 말한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식론적, 경제적, 정치적 비대칭성을 폭로하고 인공지능의 새로운 독점체들을 지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말한다는 것은 기술과 그것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 모두에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조성을 말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기준이 설정된 뒤 단지 사후 감독을 하는 정도로 공동체의 역할을 제한하기보다, 공동체가 선택하고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존할 것을 요청합니다. 연대성을 말하는 것은 알고리즘 시스템을 지탱하는 숨겨진, 종종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은 실제로 누가 이 모델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누가 단지 그들에 종속되는지 결정하는 권력의 글로벌 분배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회 정의가 기술들이 발전된 후에도 보존해야 할 목표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들의 설계 자체에도 적용되어야 할 조건임을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110.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무장을 해제하다’(to disarm)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무장 해제한다는 것은 오늘날 군사적 맥락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인지적 현상이기도 한 ‘무장’ 경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인공지능을 해방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정학적 혹은 상업적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갈망에 이끌려 한층 더 강력한 알고리즘과 더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를 수반합니다. 무장을 해제한다는 것은 기술 권력이 통치할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가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무장 해제는 기술을 거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을 독점적 통제에서 해방하고 기술을 토론과 논쟁에 개방함으로써, 기술을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고 인간 문화와 삶의 방식이 지닌 다원성으로 복원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과업은 단지 윤리적이거나 기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의 집이 지닌 새로운 차원을 건드리기 때문에 가장 깊은 의미에서 생태적 과업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가 몰두해 있는 환경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할 권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무장 해제해야 하고, 환대해야 하며,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111. 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들을 향해 특별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술 혁신은 하느님의 신성한 창조 행위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특별한 윤리적·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디자인 선택은 인간성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적 혹은 문학적 작품의 창작자가 그것이 전달하는 가치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듯,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 속에 투명성, 영향을 받는 공동체들을 향한 책임, 그리고 배양되는 것이 진정한 선이 되도록 보장하는 세심한 주의와 함께 마땅한 진지함으로 가치들을 내장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What must not be lost)

112. 인공지능의 책임과 협치에 관한 문제들을 고려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수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험은 특정 기술의 오용을 넘어 확장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몰두해 있고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증폭되는 널리 퍼진 기술관료 패러다임은 반인간적 비전을 정상으로 만들려 위협합니다. 그 비전 속에서 삶의 충만함은 더 많이 갖는 것, 악함의 감소, 불확실성의 제거, 그리고 전적인 통제 행사와 동일시됩니다. 효율성이 가치의 궁극적 척도가 될 때, 인간은 자신을 관계와 친교로 부름받은 인격체로 보기보다 최적화해야 할 프로젝트로 바라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113. 실제로 인간 실존의 어느 단 한 가지 차원을 절대적인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언제나 오류입니다. 참으로 무질서는 결핍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절제 없는 성장 역시 빈곤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한 종이 다른 종을 희생시키며 확장될

때 균형이 깨지듯, 인간 삶에서도 하나의 기능이 모든 것의 척도임을 주장할 때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지능을 절대화할 때, 지능은 감정, 의지, 헌신, 그리고 관계 같은 삶의 다른 필수 차원을 가리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술 권력이 균형 없이 남겨질 때, 우리의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고립되게 만들며 지배당하고 배제당하기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비판적 지점은 지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자기 지시적(자기 중심적)이 될 때 삶과 인간 개인을 섬기려는 지능의 참된 목적이 상실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114. 한 문명의 질은 그 수단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돌봄으로, 그리고 타인을 한낱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얼굴로 인식하는 역량으로 측정됩니다. 서로를 돌보는 역량은 우리 인간성이 지닌 근본적 차원이며, 이는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통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어르신을 동반하는 것, 그리고 환대하기 위해 집을 정리하는 것은 종종 가정생활에 뿌리를 둔 소박한 몸짓들입니다. 그것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돌봄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며 타인을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기술 또한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상호 돌봄을 지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간의 자유와 심판(기능)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을 예측하고 조직하도록 돕는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합니다. 결국 인간은 관계의 주체이며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기저에 깔린 서사들: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Underlying narratives: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m)

115.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에 동반되는 문화적 가설들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서, 이제 저는 **진보를 인간 조건의 초월로 해석**하며 종종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라는 이름표 아래 그룹지어지는 특정 사유의 흐름에 주의를 돌리고자 합니다. 이 관점들은 기술 권력의 일부 중심지들에 현존하는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형성하며, 특히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단순화된 형태로 대중적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향상된 인간’ 또는 ‘인간-기계 하이브리드’라는 미래주의적 비전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열광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6.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은 다양한 흐름과 감수성을 포괄하므로, 이를 단 하나로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개념의 ‘섬들’이 흩어져 이어진 아키텔라고(열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섬들은 구별되면서도 기술의 중심적 역할과 인간 조건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열망이라는 공통된 가설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휴머니즘은 성능과 역량을 배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바이오 의학, 신체 공학, 장치,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기술을 통해 인간을 증강하는 방법을 구상합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특히 그것이 지닌 더 급진적 형태에서 더 나아가 인간중심주의에 도전

하고 인간, 기계, 그리고 환경의 하이브리드화를 구상하며, 심지어 인류가 새로운 진화 단계 속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문턱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비록 크게 추측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대중적 상상력을 변화시킴으로써 관련성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선택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117. 교회의 사회교리 관점에서 핵심 문제는 기술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비전입니다. 만약 인간이 완성되거나 초월해야 할 무언가로 취급된다면, 어떤 삶은 덜 유용하고, 덜 바람직하며, 덜 가치 있다고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집니다. 진보라는 명목하에 종족의 최적화라는 가상의 추구를 위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며 ‘필요한 희생’을 정당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성 바오로 6세의 경고는 여전히 위대한 선견지명입니다. 참으로 도덕적·사회적 진보와 분리된 과학적·기술적 진보는 결국 인류를 거스르는 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을 인간 중심적이고 관계적인 비전에 통합하는 것과, 인간의 한계를 평가절하하고 순전한 기술적 형태의 ‘구원’을 약속하는 시각으로 인도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인간 개인의 한계, 마음, 그리고 위대함

(The limit, the heart and the grandeur of the human person)

118. 오늘날 생명과 우리의 관계는 위기에 처해 있는 듯 보입니다. ‘한계’로 나타나는 모든 것—역량 부족, 질병, 노령, 고통, 취약성—은 우리 인간성이 성숙하고 관계로 열리는 실제 지평이라기보다, 일차적으로 교정해야 할 결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 한계를 통해 변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빛은 이 세상 사물들이 지닌 이른바 ‘우연성’(contingency)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돕는 현실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인간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종교적 경험,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이 없이 인간의 위대함과 한계 사이의 이러한 양가성을 살아가며, 이를 하느님과 맺고 있는 우리의 본연적이고 근본적인 관계의 빛 안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을 아는 것 또한 지혜롭습니다.

119. 연민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 어둠과 실패의 한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관대함, 영적 경험,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흠숭이 자리 잡는 곳은 정확히 우리 한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가 가시화되는 많은 순간에 이를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거절을 마주할 때, 사랑하는 이의 질병이나 상실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실패와 맞닥뜨릴 때입니다. 신비롭게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타인의 가까이 다가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주님의 현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120. 한계가 내적 고통으로 경험될 때도, 인간의 지혜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통합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결국 사랑과 갈망 또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들은 시련과 고통을 거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는 흉터처럼 자국을 남기는 교훈들, 즉 자유와 실패, 꿈과 실망으로 형성된 여정의 기억들을 우리 내면에 지니고 갑니다. 영혼의 경이로움이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여 우리 인간성이 지닌 풍요로움을 감지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 작용 덕분입니다. 모든 한계의 가상적 초월이라는 이름 하에 비장하면서도 찬란한 이 모험을 포기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121. 피조물인 우리가 지닌 한계의 도덕적 타락, 곧 인간의 마음을 분명하게 뒤흔드는 악은 사회와 삶을 망치며, 때로는 극단적 형태의 비인간성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지닌 이러한 고통스러운 표현들조차 선을 향한 틈을 남겨둡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비인간화하고 비극을 초래할 때도,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회개와 화해의 길을 따라 다시 불붙여질 수 있는 작은 빛이 인류 내면에 계속해서 빛납니다. 빅터 프랭클이 공포의 순간에 정당하게 관찰했듯이, ‘우리는 인간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발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입술에 주님의 기도나 들어라 이스라엘(Shema Yisrael)을 머금고 똑바로 서서 그 가스실로 들어간 존재이기도 합니다.’

122. 유한성이 진정으로 수용될 때, 그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도록 우리를 열어젖힙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계—취약성, 고통,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가 지닌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형제애를 직관하고 불의를 스캔들(죄스러운 일)로 지각하는 역량을 유지합니다. 진정한 문화와 예술은 이 불꽃을 보존하며 악이 정상화되는데 저항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작품들은 거의 예언적 의미를 띠어 왔습니다.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은 일치를 향한 갈망으로, 게르니카(Guernica)는 비인간화에 대한 고발로,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는 과거를 망각하지 말라는 부르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23. 역사는 인간 폭력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리의 공유된 삶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창출할 역량이 있다는 증거도 보여줍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이는 몇 가지 상징적 성취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연민이 가득한 돌봄을 보장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창설(1863년), 법적 변화뿐 아니라 양심의 변혁을 나타낸 노예제 폐지의 긴 과정, 인간 존엄성의 보편성을 선언한 유엔 창설(1945년)과 세계인권선언(1948년), 그리고 박해와 위험을 피해 도망치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인식한 1951년 난민 협약 등입니다. 이 각각의 사례에서 선을 향한 갈망은 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취약한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공

공의 문맥—법, 제도, 그리고 실천—속에서 구체적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중 그 어떤 것도 저항, 협소한 이익, 혹은 문화적 관성을 마주하지 않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 진보는 거의 언제나 길고도 요구가 많은 여정, 빈번히 후퇴에 의해 드러나는 여정을 통해 전개됩니다. 우리는 단지 교착 상태에 빠진 평화 프로세스나 환경적 약속의 느린 이행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취들이 지닌 부서지기 쉬운 자체가 이를 시작하고 지탱하는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각시킵니다.**

124. 특정 사건들은 개인들이 모든 이의 존엄성을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역사 또한 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증언과 긴밀히 연결된 미국의 인권 운동, 혹은 넬슨 만델라의 석방과 미래를 증오에 넘기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에 뒤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의 종식입니다. 상이한 맥락으로 성 라우라 몬토야, 가르카타의 성 테레사, 도로시 데이, 마리 스클로도프스카-퀴리, 마리아 몬테소리, 엘리사벳 엘리엇, 왕가리 마타이, 베나지르 부토, 그리고 역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모든 대륙의 수많은 용기 있고 관대한 여성들 또한 두드러집니다.

125. 이러한 공공의 징표들과 나란히, 더 숨겨져 있으나 결정적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섬기기를 선택하는 종교 공동체들 속에서 이를 봅니다.** 우리는 또한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 오스카 로메로, 그리고 복자 엔리케 안젤렐리와 같은 형제애와 정의의 순교자들 속에서, 그리고 가변적이고 흔히 비인간적 조건 속에서도 인간 존엄성뿐 아니라 복음의 희망을 육화했던 가련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응우엔 반 투안 같은 증인들에서 이를 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요란한 광고 없이 돌보고, 교육하고, 동반하며, 위로하는 ‘일상의 순교자들’, 곧 부모, 간호사, 의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어르신이나 소외된 이 곁에 남아 있는 이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증언은 선이 자동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 후에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인내, 기억, 그리고 내적 회개가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126. 마음이 퇴행하도록 버려두지 않으면서 기술적 진보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고 희망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제도, 신뢰할 수 있는 증인, 그리고 일상의 충실함이 지닌 이러한 얽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위대함과 상처의 온전함 속에 있는 인류는 결코 대체되거나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성이 지닌 본질적 핵심, 곧 관계와 사랑을 향한 역량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고통을 완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적 진보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결정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진정한 ‘인간 이상의 존재’(more than human)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질문에 대해, 기술의 신격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한 성취를 가리키며 답합니다.

진정한 '인간 이상의 존재': 은총과 그리스도교 인간학

(The authentic "more than human": grace and Christian humanism)

127. ‘인간 이상(以上)’이라는 표현이 기술적 약속의 배타적 영역인 것은 아닙니다.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전통은 인간이 자기 본성의 경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현실 도피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경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성취를 통해 자기 초월로 불리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기원하는 ‘저 너머’(beyond)를 향한 개방성을 인식합니다. 이 변혁은 성령의 과업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듯이, 이 고양과 변혁의 과정은 ‘피조물 본성의 모든 역량을 능가’하는데, 왜냐하면 무한한 불균형이 우리의 유한한 본성과 하느님의 삶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동안에도, 그 무궁무진한 삶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통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영원하신 분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 자신이 ‘무한한’ 비대칭을 극복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인간 개인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

128. 우리가 하느님 은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초월할 가능성을 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덜 인간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인간 이상이 될 때, 곧 하느님께서 우리 존재의 가장 충만한 진리를 달성하도록 우리를 우리 자신 너머로 데려가시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온전히 인간적이 됩니다.” 여기에 프로메테우스적 꿈과의 근본적인 결별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향상된 자기 충족성이 아니라 해방하는 관계이자 변혁하는 친교입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분류하고 최적화하기만 하는 기술은, 비록 의도치 않았다 할 지라도 변화와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게 오류는 교정되어야 할 결함이지만, 사람에게 오류는 심오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은총으로 고양된 본인의 자유와 가꾸어진 관계들에 달려 있습니다.

두 도시와 두 사랑(Two cities and two loves)

129.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과학이나 기술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감사와 리얼리즘(현실주의)으로 포용하며, 그것들을 더 높은 소명 위에 기초를 둡니다. 인류의 창의적 지능은 고통을 완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공동선, 정의, 취약한 이들과 피조물을 향한 돌봄을 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된 대안은 열광과 두려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발전의 길 사이에 있습니다. 곧 개인과 민족들을 섬기는 진전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권력의 멘탈리티에 종속시키는 진전이나입니다. 궁극적으로 핵심 질문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제기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이 “지상에서의 인간 삶을 그 삶의 모든 측면 속에서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인간에게 더 합당하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의 답이 ‘예’라면, 우리는 이를 느헤미야서에 서술된 예루살렘 재건과 유사하게 인내롭고 공유된 재건의 길 위에서 책임 있게 포용해야 할 기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권력은 성장하는 반면 마음은 시들고 인간적 유대가 닳아 흔들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바벨—거대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건축물—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 이러한 대안적 발전의 길과 우리가 이를 해석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묻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계, 노동, 그리고 제도들을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은 실질적 관행에서 우리의 근본 가치들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것은 모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나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방향짓는 사랑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인간 역사를 두 가지 사랑 사이의 투쟁으로 묘사했는데, 이 사랑들은 세상에 거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즉 말하자면 ‘두 도시’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한편에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기 자신만을 향한 배타적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지었습니다. 곧 하느님을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도시를 지었고, 자기를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느님 사랑이 하늘의 도시를 지었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 그러했듯, 이 두 사랑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지배권을 얻기 위해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벨의 건축이나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제4장 변혁의 시대에 인간성 수호: 진리, 노동, 자유 (SAFEGUARDING HUMANITY AT A TIME OF TRANSFORMATION. TRUTH, WORK, FREEDOM)

131. 인공지능(AI) 및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흐름과 연관된 기술적 변혁의 도전이 자리한 맥락을 개괄하였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일반적 분석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언어와 도구가 바뀌면 일상 행동과 사회적 관계도 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변혁이 유독 구체적이고 때로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변혁은 우리에게 진리를 공동선으로 재발견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모든 형태의 의존성과 상업주의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도록 정중히 요청합니다.

공동선으로서의 진리

진리와 민주주의

132. 디지털 플랫폼과 AI 시스템 사용은 공공 및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깊은 변화를 일으

키고 있습니다. 대화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종종 왜곡된 서사를 구축하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사실과 의견을 뒤섞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disinformation)가 AI와 함께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AI라는 강력한 증폭기를 만났습니다. 콘텐츠, 이미지, 영상을 조작하는 기술은 사람들을 편향되거나 오도된 관점에 노출시킵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사회적 신뢰에 직접 의존하고, 역으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적이고 도덕적 차원을 지닙니다. 동시에, 진실한 정보는 중앙집권적이거나 자동화된 통제에서 비롯하지 않습니다. 공적 담론에서 사실의 진리는 검증, 출처의 교차 확인, 책임 있는 논증을 요구하므로 이성적 차원을 지닙니다. 더욱이 그것은 다른 이들, 세상과의 정직한 교류뿐 아니라, 신뢰의 유대와 공유된 실천을 통해 구축되므로 깊이 관계적입니다. **사실의 진정성을 공동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구할 때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33. 강력한 기술적·경제적 자원과 더불어 개입을 위한 상당한 인적 자본을 지휘하는 이들은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인류, 세상, 존재 의미, 가족, 심지어 하느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분리된 그저 권력일 뿐이며, 다른 이들이 진리로 받아들일길 바라는 바를 미묘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강요합니다. 그 뿌리에는 깊고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질병’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곧 “현대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사회를 스스로 창조한 유일한 주체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140]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을 구축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든 진리에 상응한다고 믿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러한 ‘진리(진실)의 위기’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성찰하시며,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선에 관한 보편적 진리라는 개념이 일단 상실되면, 양심의 개념 역시 필연적으로 변화한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141]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며 양심이 수용해야 하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진리들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했습니다. “인간 개개인이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다는, 시대의 성찰, 위대한 지혜에서 비롯된 확신이 없다면 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교황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사회에 미래가 있으려면 인간 존엄성의 진리를 존중하고 그 진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살인이 잘못된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확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사용을 통해 도달하고 양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비타협적 진리입니다. 사회가 고결하고 품격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진리 추구를 지지하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입니다.”[142]

134. 진리의 탐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가 공동선에 기여하는 수단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질문이 매력을 잃고, 유용하거나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는 실용주의가 자리를 차지하면 민주주의적 삶은 약화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규칙과 절차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실과의 견고한 일치, 그리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선에 대한 진정한 투신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느리지만 확실히 전체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썼듯이, 이러한 체제의 이상적인 피치자(被治者)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득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과 허구의 구별(즉, 경험의 현실)과 참과 거짓의 구별(즉, 사유의 기준)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143]

커뮤니케이션과 집단적 상상력

135. 이 점을 고려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전달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창조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44]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우리의 욕망을 지시하고 일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와 서사를 집단의식에 주입합니다. 온라인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는 사람들의 삶, 특히 가장 어린 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행 세계나 순전한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145]

136.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제하는 이들은 집단적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 대한 특정 비전을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은 끊임없이 진리 추구하고 인간 존엄성 존중의 인도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리하여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과도한 주의 분산이나 획일화 또는 지배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가 성숙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게 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생태학을 향하여

137.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기술적 도구를 악마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선이라는 근본 원리에 기반하여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생태학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공공 정책 차원에서 이는 콘텐츠 선택과 그 개발 뒤에 숨은 의사결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하여, 이는 이성적 논증과 검증이 즉각적인 반응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는 토론을 위한 포럼, 진지한 저널리즘, 그리고 중간 단체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경우, 디지털 도구, AI, 그리고 온라인 상업·금융 플랫폼의 올바르게 비판적인 사용에 관한 새로운 교육적 인식과 형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주요 도전 과제는 지식의 통합에 있으며, 복잡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식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사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익혀야 합니다.

138. 그리스도인 공동체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사실의 정직한 추구에 투신하도록

불리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과 교회 현실에서조차 고통스러운 진리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움 속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열정에 이끌린 일부 언론인은 불의와 남용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론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던 말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나는 또한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준 것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카펫 아래로 쓸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그리고 학대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146] 그러나 경계와 투명성은 무엇보다 교회 자신의 중대한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 자신에 관한 불편한 진리에 직면하도록 강요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교육 동맹

139. 진리가 종종 특정 이익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봉사하기 위해 왜곡되는 시대에, 교육 분야는 결정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적 변혁은 우리가 교육적 수준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를 드러냅니다. 디지털 미디어 침투는 즉각성과 과도한 자극의 문화를 조장하며, 이는 진리를 구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에 대한 피로, 지루함, 무관심을 낳습니다.

140. 반면 교육은 인내를 요구하는 긴 여정이며, 따라서 겉모습을 넘어선 현실과의 관계 맺음과 발전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AI의 사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때와 목적이 언제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답이나 요약본을 얻을 수 있는 속도와 용이함은 질문을 던지려는 욕구를 사라지게 할 위험이 있으며, 질문이란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결실을 보는 과정입니다. 플라톤이 썼듯이, 가장 깊고 중요한 것들은 오랜 시간과 노력 후에야, 다른 이들과 토론에 참여하고 이해의 불꽃이 우리 내면에서 타오를 때까지 부싯돌처럼 아이디어와 경험을 ‘부딪쳐 가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147] 따라서 우리는 **AI 사용에서 절제를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완벽한 기계라는 약속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사유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걸보기에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미묘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141. 최근 수년간 심리학 및 정신의학 문헌은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조기 노출 및 감독 없는 노출이, 특히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단계 동안 수면, 주의력 유지, 감정 조절 및 관계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증하는 어조로 문서화해 왔으며, 때로는 비극적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감성을 손상하는 폭력적이거나 저속한 콘텐츠, 음란물 및 과도하게 성적인(hypersexualized) 자료, 신체와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담화, 위험한 행동을 정상화하는 제안들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더 악화됩니다. **온라인**

그루밍, 협박, 미성년자 성착취 같은 현상이 드물지 않으며, 가짜 프로필 사용, 위험한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알고리즘, 이미지와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AI 도구로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개인용 모바일 기기를 소유하고 성인의 감독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취약성을 더 심화하고, 중독의 정도를 높이며, 그들을 고립, 따돌림 및 사이버 폭력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은밀한 신체 이미지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2. 부모가 주의력과 시간을 화폐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력에 홀로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 교육 기관, 가정 사이에 이 과제에서 성인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의 즉각적 이익이 미성년자의 안녕과 상충할 때, 소수의 손에 집중된 그 이익에 반대할 수 있는 선견지명 있는 공공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안자들이 연령 제한을 설정하고, 통제에 모든 부담을 가정으로 전가하기보다 서비스 제공자에 책임을 지우며, 모든 형태의 온라인 성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보살핌에 맡겨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고귀한 보물로서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148] 동시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조작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방어하며,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149]

학교의 중심적 역할

143. 학교는 새로운 세대가 진리를 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견고한 가치관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많은 부모는 자녀 교육의 고귀한 파트너로서 학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도덕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교육과 형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차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날 교육계는 여러 가지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44. 첫 번째 과제는 사회·정치적인 것입니다. 개별 국가 내에서도 세계의 여러 지역 전체에서 기초 교육 및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는 공립학교 시스템을 적절히 지원하거나 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 기관을 원조함으로써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아직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의 상당 부분이 사립 기관에 위탁될 때, 특히 적절한 공적 지원이 없다면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가정의 재정적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앞에서도, 가정의 경제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배경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포용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수많은 사립 가톨릭 교육 기관의 기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5. 두 번째 큰 과제는 교수법적인(pedagogical) 것입니다. 많은 교육 시스템이 변화의 속도를 맞추고 학생들의 전인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과 AI 발전은 다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교육과정들을 빠르게 진부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조직, 물리적 공간, 평가 방법, 그리고 교사 자신의 역할은 사람의 모든 차원을 다루는 진정으로 전인적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재고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과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그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굴복하기보다 책임감 있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게, 그들의 직업적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 교육(ongoing formation)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6. 세 번째 큰 과제는 지적이며 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이 연구, 성찰, 식별의 필수 훈련을 대체해 버리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교육 시스템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점차 파편화함에 따라 현실을 전체로 파악하거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거나, 진정성 있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유를 발전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교육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애쓰는 인간성 상실의 징후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정보를 더 깊은 지식과 연결하거나 목적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기인합니다. 침묵, 심층 연구, 독서, 신중한 분석을 포함하는 리듬을 요구하는 참으로 건강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면 내면의 자유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7. 교회의 사회 교리는 가정, 학교, 그리스도인 공동체, 공공 기관이 새롭게 교육 동맹을 형성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는 근본 원리들이 교육 목표가 될 때 구체화되는데, 곧 학생들에게 절제와 한계에 대한 감각을 가르치고, 하느님께서 제공하시거나 인간의 재능으로 이용 가능해진 재화들을 누릴 타인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식하게 하며, 자유와 책임, 그리고 초월성과 공동선에 대한 감각을 심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교는 디지털 세계의 속도를 따르도록 불린 것이 아니라, 디지털 영역 그 자체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것, 즉 학습을 위한 공유된 시간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을 제공하도록 불리었습니다.

디지털 전환기 노동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

148. 사회 교리가 출현한 이래,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시작으로 교회는 노동자 보호와 모든 형태의 착취에 맞서 싸울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도권은 노동으로 전체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본질적 열쇠”[150]를 인식해 왔는데,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 존재의 많은 차원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도와 노동을 결합하여 일상 활동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일부임을 보여 준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도의 위대한 통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노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노동을 이어 가며,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 진보와 공동선에 기여하고, 우리가 받은 능력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세상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가족을 부양하고, 협력 관계에 참여하며, 경청과 대화를 통해 누구도 혼자선 이를 수 없는 것을 함께 건설하는 법을 배웁니다.

149. 이러한 이유로 노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우리 삶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드높이는 수단입니다. 노동은 인간 조건의 요구 사항이자 성숙, 발전, 개인적 성취를 향한 정상 경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곤한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긴급 상황에서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유일한 응답이 될 수 없는데, 목표는 각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51]

150. 오늘날 **자동화, 로봇 공학, AI의 융합은 노동의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큰 개선을 가져다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하는 ‘새로운 방식’이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AI가 일상적 업무를 맡아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빈번히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계가 자신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되 기보다 기계의 속도와 요구에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과적으로 AI에 대해 광고된 이점과 달리, 기술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은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기술 수준을 떨어뜨리고 (de-skill), 자동화된 감시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경직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 필요성은 노동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노동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 능력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152] 바로 이러한 표류를 피하기 위해,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 중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 문제

151.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실업이 증대한 악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참으로 실업이 대규모에 이르면, 그것은 특히 국가가 책임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한 사회적 재앙이 됩니다.[153]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서 이러한 우려는 더 극심한데, 혁신이 종종 단지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만 추구되기 때문입니다.[154] 일부 맥락에서는 가정, 청년, 지역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용 일자리의 상당하고 급격한 축소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많은 부문에서 이는 이미 **노동자 전체의 많은 부분의 임금 하락과 함께, 고도로 전문화된 소수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특징으로 하는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2. 기술이 인간에게서 힘들고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덜어 주고 인간 활동에 지능

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고용 기회의 보호와 인간 개개인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은 일반 규칙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이윤의 추구가 일리를 체계적으로 희생시키는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는데,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경제 질서는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에 종속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3. 동시에 우리는 모든 실제적 전환이 불연속성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균등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때로는 갈등을 빚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변화의 단일 모델이나 보편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응답을 요구하는 장소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을 특징짓는 불평등을 고려할 때, AI와 계산 시스템의 확산은 지역마다 다양한 효과를 낳습니다. **부유한 사회는 빠르고 무질서하게 자동화를 진행하여 노동력의 필요를 줄이고 실업과 제도적 마찰의 여지를 만듭니다.** 반면 세계의 광대한 지역들은 하이브리드/혼합 경제에 갇혀 있으며, 그곳에서는 저임금 인간 노동과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 진정한 변혁을 이루지 못한 채 공존합니다. 이 지역들은 불안정한 노동 장소가 되고, 불안정과 강제 이주의 온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중간 공동체들의 참여를 통해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구조화된 모델, 지역 이니셔티브, 점진적 재분배, 필수 재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권리를 포함하는 적응형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추상적 조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 변혁의 시대에 인간 공존의 구체적 형태들을 구축해야 합니다.

154. 노동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 차원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표현,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넘어섭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오직 작은 일부만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는 많은 이를 강제된 무활동, 책임감 결여, 그리고 일상의 과업과 자극 부재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인간적·문화적 황폐화를 초래합니다.** 이는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 평화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물질적 진보와 인간학적 퇴행의 역설을 낳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사회 교리는 **모든 이를 위한 노동에 대한 접근이 공공 정책과 경제 과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개발 모델의 인간적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합니다.[155] 더욱이,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기술적·조직적 과정으로 인해 노동이 점차 위축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그 지역들에서, 우리는 **실업이 사회적 참여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노동의 성격과 시민 권과의 연결 고리를 재고해야** 합니다.

155. 이러한 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사태』 이후 교회의 사회 교리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복지 기구를 포함하여 그 전통에서 출현한 이니셔티브들은 노동 법률을 개선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더 인간적인 조건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156]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도구들은 AI에 의해 추진되는 변혁, **시장의 새로운 조직, 그리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거의 관심**

을 두지 않는 경쟁력 앞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수준을 포함하여, 빠르게 적절하고 공유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 노동 단체, 비즈니스계, 과학 공동체 사이에 새로운 협력 노력이 필요합니다.[157]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고용과 노동자들의 상응하는 필요에 열려 있도록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담한 결정이 없다면 더 큰 빈곤과 불평등의 전망이 크게 다가오며, 이는 많은 개인을 소외시키고, 낙오시키며, 자신들을 대체한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에 둘러 싸이게 만들 것입니다.

156. 이 전환기에 일자리가 사라질 때만 반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는 **변혁을 사전에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의 실행 가능한 경로는, 첫째로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동화와 AI의 모든 도입은 노동자의 고용, 재교육, 참여를 보호하기 위한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수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은 배제를 낳기보다 인간의 시간과 능력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속 교육과 직업적 전환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선제적 정책을 필요로 하며, 적응 비용이 개인에만 전적으로 전가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공 지표에 노동의 질과 존엄성을 포함하는 기업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할 때 혁신은 더 안전하고 창의적이며 존엄한 노동의 동맹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혁신은 불의를 가속화하는 기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제

157. 노동 시장은 새로운 기술과 연관된 위험들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제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공동선과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비추어 측정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의 솔루션은 단지 이윤에만 의존하는 변수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고 삶을 개선하는 참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존엄하고 가치있는 일자리 창출이 사회에 대한 기업의 고유한 봉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158]

158. 예언자적 정신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로만 선포되는 경제 자유를 경고하였는데, 실제 조건들은 많은 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159] **효율성과 개인적 성공을 미화하는 경제 모델들은 종종 소외된 사람들이나 발전 속도가 느린 사람들에게 대한 투자를 무용하거나 불편한 것으로 여기며, 마치 그들의 미래가 오직 ‘승자들’과 속도를 맞추는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실제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효율성이라는 단일한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자원, 창의적 해결책, 규제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이롭게 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민한 국가와 시민 제도가 필요합니다.[160] 성장의 혜택이 ‘언젠가는’ 가난한 이들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성장이 처음부터 포용적이 되도록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경험은 **경제, 금융 위기에서 항상 가**

장 높은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며, 자동적으로 모두의 번영을 약속하는 이론들은 종종 환상으로 증명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59. 80년 이상 국내총생산(GDP) 개념에 묶여 온 현재의 개발 측정 방식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는데, 이 지표들은 사람과 환경의 전반적 안녕에 본질적 측면들을 거의 체계적으로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GDP를 보완하는 매개 변수와 측정 방식의 개발은 분석 수행,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우선순위 수립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새로운 매개 변수 도입은 입법 및 규제 결정이 노동의 존엄성, 공유된 번영, 불평등 감소, 환경 보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개발 개념, 교육 과정, 마음가짐과 여론, 그리고 오직 정의에 기반할 때만 진정성 있는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60. 최근 금융은 그 중요성이 커졌고 가상화폐 도입에 힘입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들의 가르침, 특히 그분들의 회칙에 담긴 성찰과 관찰은 금융 중개 부문이 “필요한 인간학적·도덕적 토대 없이 작동할 때 명백한 남용과 불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이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할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161] 마찬가지로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대체할 위험이 있으며, 노동 소득은 종종 경제 시스템의 일차적 관심사에서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를 위한 신용으로 전환되어 일자리와 자영업 노동을 모두 창출하는 저축은, 진행 중인 전환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자와 개발을 위해 여전히 중심적입니다. 신용의 사회적 기능은 대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만을 위한 금융은 노동의 개발, 창출, 진화를 거당한 금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61. 이러한 관점은 글로벌 역학에 대한 더 넓은 시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부는 절대적 의미에서 팽창했지만, 그것은 점차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소수가 있고 가진 것이 너무 적은 다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논리입니다.”[162] 의학 분야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적 발전은 최근의 팬데믹 동안 극적으로 증명되었듯이 인류 대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사치스러운 개입이나 소수 선택된 이들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적 향상의 꿈에 막대한 지출을 하는 반면, 세계의 다른 지역들은 수백만 명의 인간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비조차 부족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자동으로 모두에 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증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설계 단계의 변혁이 새로운 추가 격차 방지를 우선하지 않는 한, 기술 진보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낳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의는 돌봄, 지식, 도구, 기회를 포함하여 혁신의 혜택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162.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정의로운 법률과 재분배 방법이 분명 필요하며, 여기에는

가장 약한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조세 체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의 추구는 부의 생산 이후에만 따르는 별개 문제로 간주해선 안 되는데, 마치 경제는 오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정치인들은 사후에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 개입할 뿐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정의는 자원 획득에서 금융 조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경제 활동의 모든 단계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선택은 도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163]

163. **AI와 로봇 공학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느 때보다 불가능합니다.**[164] 정치는 존엄한 노동, 사회적 포용, 그리고 혁신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증진하면서 경제와 기술을 공동선으로 지향하게 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결정이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하고 복지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공통 전략을 정의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뒤에 있는 사유는 모든 사람의 헤아릴 수 없는 존엄성, 공동선, 그리고 진정 모두를 위해 다스려지는 세상입니다. 성 바오로 6세가 1967년에 예언적으로 썼듯이 평화와 개발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데, 번영은 그것이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할 때만 평화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165]

164.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AI와 로봇 공학의 시대에 경제가 인간 존엄성을 이롭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확고한 행동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신용 분배, 인력 선발 또는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칠 때, 개인이 단순한 프로파일로 환원되지 않도록 결정이 이해 가능하고,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용과 접근성입니다.** 기술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리지 못하도록, 혁신의 혜택은 기술, 인프라,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조세, 사회 보호, 산업 정책은 부와 권력의 집중으로 생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기준들은 혁신에 대한 억제가 아니며, 오히려 혁신을 문명화하고 인간적이게 합니다.

가정과 청년: 희망을 위한 사회적 조건

165. 가정은 일차적인 사회적 재화입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지속적인 결합에 기초하여, 가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진리와 선의 초기 형태들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습관을 내면화하는 첫 번째 환경입니다.[166] 법률적 고유 권리를 부여받은 첫 번째 자연 사회로서, 가정은 모든 공동체 조직의 근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세포입니다.[167] 결과적으로 정치 프로젝트와 중대한 경제적 결정들이 가정을 지엽적이거나 부차적인 역할로 격하시킬 때,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성장은 지체됩니다.[168]

166. 그러나 가정은 노동의 성격을 재형성하는 경제적·기술적 변혁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한 사회적 재화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문화적, 법적, 경제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실업과 고용 불안정이 가족 구조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 비용을 줄이거나 금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사회 공존의 토대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기술적 성공이 축하받는 동안, 사회적 직물은 마치 소리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침식됩니다.

167. **청년들에게 고용 불안정은 특히 파괴적입니다.** 미국 주교단이 상기했듯이, 노동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정과 관계를 구축하며, 실천적 책임을 학습하고 자신의 소명을 식별하는 결정적 영역입니다.[169] 높은 수준의 실업, 부적절한 훈련 시스템 또는 구조적 장벽으로 노동에 대한 접근이 가로막힐 때, 많은 청년은 자신의 인간적·직업적 성취로 향하는 경로가 차단됨을 발견합니다. 생애 동안 여러 번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필요성은 새로운 세대가 변화하고 종종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에 유능하고 독립적으로 맞설 수 있게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재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170]

168. 이는 구체적인 공공의 책임을 낳습니다. 국가는 고용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노동이 부족한 곳에서 이를 장려하며, 위기의 시기에 이를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데, 노동은 가정과 사회를 위한 일차 재화이기 때문입니다.[171] 특히 지속적인 기술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노동’을 장려하고 가족과 다가오는 세대를 중심에 둔 정치적 창의성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적 진보는 고용 불안정과 배제의 새로운 형태로 번역될 것입니다.

169. 가정과 청년을 이 전환기에 지원하는 것은 안정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들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 정책은 불안정을 삶의 정상적 조건으로 여기는 것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적 성장을 위한 현실적 경로를 장려하면서, 고용 연속성과 질을 증진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생활 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데, 노동, 여가, 휴식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없으면 가정은 악화되고 청년들은 책임감을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접근 가능한 교육과 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디지털 경제가 요구하는 직업적 이동성이 자신의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가혹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삶의 선택에 수반되고 불확실성이 외로움이나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네트워크와 교육 공동체들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이러한 기술적 변혁들은 미래를 구축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탐색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를 번영하게 만듭니다.

의존성과 상업주의에 맞선 자유 보호

의존성과 사회적 통제

170. 진리와 교육, 노동과 가정에 대해 성찰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더 넓은 사회적 도전을 모두 다루면서 디지털 혁명이 인간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플랫폼과 서비스가 종종 사용자의 시간과 주의력을 사로잡고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하며 내면의 자유를 약화시키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디지털 주의력 경제’와 연관된 미묘한 형태의 중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인간의 약함을 자양분 삼아 번창할 때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되며,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금융을 조달하는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도덕적 책임을 집니다. **디지털 통제에 대한 교육과 미성년자 보호를 촉진함으로써 내면의 자유를 강화하고, 취약성을 이용하는 모델들에 대응하는 기술을 증진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171. 덜 가시적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또 다른 위험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가능해진 사회적 통제 위험**입니다. 모든 행동(이동, 구매, 관계, 선호도)이 흔적을 남길 때, 개인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을 프로파일링하고 예측하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출현합니다. 만약 그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신용, 고용 또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같이 구체적인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면, 자유를 약화시키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차별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통제는 명시적 금지뿐 아니라 가시성의 아키텍처를 통해서도 행사되는데, 무엇이 증폭되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지, 무엇이 보상받거나 처벌받는지 궁극적으로 의견과 선택을 형성하여 동조와 자기 검열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시대의 자유는 단지 내면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양심에 대한 통제 형태가 되지 않고 인간 개개인에 봉사하는 상태로 남아 있도록 **명확한 규칙, 투명성, 이의 제기 가능성, 그리고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 사용에 대한 비례적 제한을** 요구합니다.

172. 이러한 문제들의 뿌리에는 인간 개개인을 조작해야 할 대상이나 최적화해야 할 자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테크노크라시적이고 포스트휴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172] 제어되지 않는 이윤 추구에 맞선 모든 보호 조치를 제거해 버립니다. **팽배한 것은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일부 포스트휴머니즘 흐름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의 이익에 종속된 ‘2등’ 인간을 구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우려스러운 전망은 통제와 선택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적 도구들과 결합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인구 전체를 의존 조건에 묶어 두는 어떤 형태의 구조적 부채(structural indebtedness) 역시, 노예제와 유사한 종속 관계를 용인하는 동일한 사고방식을 새로운 형태로 반영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 사슬 끊기

173. 오늘날 인간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디지털 경제와 직접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예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AI의 세계에서 비물질적이거나 마법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보기에 즉각적이고 결점 없는 모든 응답은 자연 자원,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긴 중재 사슬의 결과입니다. 디지털 경제 기능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레이블링, 모델 훈련, 그리고 종종 충격적 자료를 포함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 같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소리 없는 노동에 의존합니다. 많은 경우 이 노동자들은 청년들이며, 지극히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주로 여성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더해, AI가 의존하는 기기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에 요구되는 자원을 추출하는 훨씬 더 혹독한 노동이 있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희토류 원소가 추출되는 재료들을 부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계산의 흐름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신체는 상처 입고, 다치며, 닳아 없어집니다. 더욱이 범죄 네트워크는 인신매매 피해자(매우 흔하게는 미성년자)를 모집, 통제, 운송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메시징 시스템, 익명 결제 방법, 프로파일링 기술을 사용하며, 인간을 글로벌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는 동일한 디지털 회로 내에서 추적해야 할 '데이터'이자 이동시켜야 할 '패키지'로 전락시킵니다. 이 현실은 우리 시대의 도덕적 양심에 큰 도전입니다. 혁신의 혜택을 찬양하거나 효율성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들이 의도적으로 숨겨진 착취의 사슬 위에 구축된다면 말입니다. 기술이 해방을 약속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종속을 낳는다면, 이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근본 원리와 모순됩니다.

174.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맞선 싸움은 AI와 디지털 변혁의 도덕적 식별을 위한 결정적 시험대입니다. 레오 13세가 개시한 전통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교회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 인신 매매, 인간 상업화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선택의 초점이자 목표로서뿐만 아니라 인도(人道)의 기준으로서 **모든 인간 개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과 공동선을 유지하는 성찰과 행동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성찰이 없다면 디지털 시스템의 점증하는 권력은 우리를 과거의 수치스러운 행위 못지않은 새로운 만행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적'이고 '문명화된' 사회라 계속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175. 인신 매매는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관행들을 어떤 식으로든 묵인하는 것은, 과거에 노예제가 은폐되고 정당화되던 때와 유사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날의 죄에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173]

176. 교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교회는 점차 이러한 문제들의 중대성을 더 깊이 인식하

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성숙된 도덕적 기준들이 언제나 이용 가능했던 것처럼 시대착오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와 교회 모두가 노예제라는 재앙을 규탄하는 데 보인 지체(delay)를 부인하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많은 개인과 심지어 교회 기관들도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이미 근대 초기에도 로마 사도좌는 군주들의 요청에 따라 예속의 형태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신자들’의 노예화를 규제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입했습니다.[174] 노예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규탄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으며, 특히 교황 레오 13세 치하에서였습니다.[175] 이 발전은 교회가 수호하는 계시의 영원한 진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회가 성장했음을 보여 주는 명확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노예제가 영원히 규탄받기 전에 오랫동안 용인되었다는 점에서 실천상 일관성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인간이 노예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기까지 18세기가 걸렸을지라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 개개의 존엄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역사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기억 속에 있는 상처이며, 우리는 이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되어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176] 주님으로부터 무한히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헤아릴 수 없는 존엄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수많은 이가 겪은 거대한 고통과 수치를 묵상할 때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이름으로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177. 이것이 바로 노예제의 불의 앞에서 과거의 공모와 맹목에 대한 기억이 경계를 향한 외침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현재의 식별과 책임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구하는 인간 존엄성의 보물을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래에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인신 매매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규탄하는 것, 그리고 이 대의에 투신한 모든 이와 함께 예방, 보호, 해방, 재활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몫입니다.

178. 오늘날에도 **식민주의는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체만을 지배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유하여 개인의 삶을 착취 가능한 정보로 변형시킵니다. **구조적 취약성과 제한된 지정학적 관련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 전체가 현재 추출의 새로운 사고방식, 곧 건강 데이터, 역학 프로필, 유전자 지도, 인구학적 정보의 추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권력의 새로운 ‘히토류’가 되었습니다. 즉 일단 집계되고 분석되면 예측 모델을 훈련하고, 투자 전략을 안내하며, 위기를 예측하고, 무엇보다도 누구와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원조, 연구 또는 혁신이라는 구실 아래 종종 수집되는 인구 전체의 건강 데이터를 통제하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구조적 지렛대를 보유하는데, 그들이 필요와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이들보다 먼저 누구에게 의약품, 투자, 보호 조치가 할당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도덕적 과제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곧 공

유된 지식이 지배 도구가 아니라 참된 공동선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그들을 설명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는 포스트 식민지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179.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는 경제 사슬과 디지털 인프라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선에서 동시적 행동이 요구됩니다. 첫째, 기술 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급망이 더 투명해져야 하며, 그리하여 숨겨진 착취 위에 어떤 경쟁 우위도 구축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과 투자자들은 노동자 보호, 강제 노동과의 싸움, 그리고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사회적 영향 평가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예방적 도덕 검증(실사, due diligence)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더욱이 디지털 플랫폼은 커뮤니케이션, 결제, 프로파일링 도구가 피해자 모집과 통제 채널이 되지 않도록 당국 및 시민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렴될 때 디지털 환경은 착취 공간에서 보호, 예방, 인간 존엄성 증진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책임

180. 방금 고려한 다양한 영역들 공공 생활에서의 진리 탐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 노동의 변혁, 가정의 취약성,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는 분리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공통의 기저에 깔린 문제를 반영하는데, 곧 기술이 궁극적 기준이 된다면 인간 개개인은 데이터, 기계의 톱니바퀴 또는 상품으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지혜로운 관점과 통합된다면 그것은 성장, 정의, 형제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81.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 교리는 책임 공유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들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인도되기를 요구합니다. 곧 억제하지 않으면서 규제하고, 빼앗지 않으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 노동과 존엄성을 성공의 척도로 인정하는 기업들, 신뢰와 관계를 재구축하는 중간 단체들과 교육 공동체들, 그리고 책임, 절제, 식별, 진리에 대한 감각을 함양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혁신은 배제와 지배의 원천이 되기보다 전인적 인간 발전에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진보의 약속은 모든 남성과 여성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에 비추어 측정되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권력의 문화와 사랑의 문명

(THE CULTURE OF POWER AND THE CIVILIZATION OF LOVE)

182. 인공지능이 삶과 사회의 몇몇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특히 인간 존엄성에 미치는 중대한 함의들을 숙고한 우리는 이제 전쟁이라는 한층 더 비극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새로운 도구들의 효율성뿐 아니라, 윤리와 책임에서 분리된 기술이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을 더 신속하고 비인격적으로 만들고, 무력 사용을 즉각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제시할 위험성입니다. 점차 상호의존적이 되어 가는 세계에서 평화는 단지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보편적 공동선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민족들의 도덕적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시험대이며, 특히 통치자들에게 그러합니다.

183. 디지털 혁명이 분쟁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쟁과 병행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영향력 행사 캠페인, 전략 결정 자동화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분쟁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많은 기술이 본질적으로 양면적(ambivalent)인 맥락에서 그러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어를 위해 만든 것이 공격용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으며, 보호와 침략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민간인의 방어와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무력 사용 문턱을 낮추고, 사람으로부터 책임을 방기하며, 적(敵)을 통계로 환원하고 피해자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전락시키는 문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사회교리의 원리들—인간 존엄성,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정의—을 상기해야 하는데, 이 원리들이 기술이 진정으로 인류에 봉사하는지 아니면 인류를 예측시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의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84. 따라서 이 장에서 저는 서론에서 성경적 이미지를 통해 이미 환기했던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한편에는 권력과 교만에 의존하여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인류와 공동선을 수호함으로써 예술품을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듯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185. 우리가 글로벌 동학을 살펴볼 때 양극화와 폭력이 특징인 힘의 문화(culture of power)가 확산하는 것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바벨탑은 글로벌화된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뿐 아니라, 적대적 제국주의 간 원거리 충돌, 즉 자신들의 우위를 지키려는 패권국들과 그 우위를 찬탈하려는 도전 국가들 사이의 충돌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지역 분쟁을 초래하는 중입니다. 더욱이, 점차 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려는 비인간적 야망에 이끌린 경쟁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 나선형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로 남아 있기 위해 분투하고 공존과 평화의 거룩한 도성을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인류의 거대한 부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 도성의 무지한 건설자이자 서툰 건축가이며, 관대한 몸짓에는 능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전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더 느리고, 덜 가시적이며, 덜 극적이지만, 가정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와 민족 간 관계가 의식

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이해와 더 큰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전망, 이 희망의 건설 현장을 “사랑의 문명”(civilization of love)이라 부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랑의 문명

(The civilization of love in the digital age)

186. 성 바오로 6세께서 “사랑의 문명”이라는 표현을 고안하였을 때[177], 세계는 냉전, 군비경쟁,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체제 간 이념 대립에 대안 경로를 제시했으며, 정의와 사랑이 결합하고 사랑이 경제, 정치, 문화생활의 인도 원리가 되는 사회 질서를 구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전을 단호히 회복해야 하는데, 사랑의 문명은 순진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랑을 정의의 구조로 전환하고, 형제애에 제도적 형태를 부여하며, 개인이든 민족이든 타인을 공동선 구축에 필요한 동맹으로 간주하는 엄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오직 이러한 사회적 우애(social love)만이 문화가 되고 규범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단순한 무장을 통한 공존을 공유 미래를 가진 공동체로 전환해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178].

187. 이 통찰은 디지털 전환의 현재 맥락에서 더 근본적임이 증명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글로벌화된 경제,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 곳에서 내려진 결정과 그것이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효과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점차 더 긴밀한 유대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간 증가하는 상호 의존성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은 여전히 시의 적절한데, 공동선이 전체 인류 가족과 관계되는 권리와 의무와 함께 점차 더 보편적 차원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179]. 따라서 사랑의 문명을 위한 프로젝트는 이 강요된 상호의존성을 자발적이고 선택된 연대성(solidarity)으로 전환하는 과업을 떠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술적 과정을 인도하는 원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더 효율적이거나 연결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디지털 근접성이 만남과 상호 돌봄을 위한 진정한 기회가 되는 공유 권리와 의무를 지닌 보편적 인간 가족을 건설하는 데에도 봉사해야 합니다.

힘의 문화(The culture of power)

188. 우리 시대에는 자원의 가용성과 지배 역량이 의제와 의사 결정 기준을 좌우하려는 힘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공동선은 배경으로 밀려나고, 전쟁 중인 민족들의 구체적 비극은 전략적 이익과 관련하여 부차적 고려 사항으로 축소됩니다. 이 힘의 문화는 사회에 침투하고, 관계와 행동을 변화시키며, 전쟁을 일상화하고, 한층 더 거대한 군사력을 추구하며, 다자주의의 위기를 이용하고,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현실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성장합니다.

전쟁의 일상화(The normalization of war)

189. 1965년, 성 바오로 6세의 말씀이 유엔 총회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결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180] 우리는 평화를 향한 갈망과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이 대규모로 민간인들에게 빈번히 영향을 미치며 무고한 피해자의 죽음, 대규모 이주, 사회적 불안정,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초래한 놀라운 정도의 잔혹한 분쟁들로 점철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적 담론에서는 전쟁이 엄격한 윤리적·법적 한계의 지배를 받으며, 언제나 평화를 향한 정치적 비전을 지향하는 최후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의 발전들에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에 확인된 바와 같이 “다가올 세대들을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의도와 함께 평화가 국제 질서의 초점이 되었습니다[181].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의 헌법이 무력 사용을 극단적일 만큼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황이 되어야 함을 명문화했습니다. 냉전 중에도 심각한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 대전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190.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군비 재조정에 관한 결정과 공적 담론에서 실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전에 그 사용을 제한했던 바로 그 윤리 원리들이 약화하는 동안 국제 정치의 수단으로 전쟁이 가슴 아프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끄는 지역 분쟁들, 고조되는 긴장과 상호 위협은 거의 일상이 되고 있으며, 극복된 것으로 여겼던 영토 확장 야욕에 이끌린 형태의 분쟁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미디어 서사들 탓에 점차 여론이 형성되고 조건화되고 있으며, 이 서사들은 분쟁과 대립을 우선하는 알고리즘으로 종종 증폭되곤 합니다.

191. 우리는 또한 홀로코스트와 두 차례 세계 대전의 1차 증언들이 사라져감에 따라 역사적 기억이 당혹스럽게 상실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짜 뉴스와 서사 조작이 학습된 교훈들을 가리려는 의도에서, 과거에 대한 선택적이거나 왜곡된 재편집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살아 있는 기억이 없다면, 장기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오직 힘만을 기초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192. 이 모든 것에 미디어와 디지털 차원이 새롭고 결정적인 요소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통 네트워크, 파편화된 정보 환경, 분쟁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은 양극화와 원망을 확대하고, 프로파간다를 증가시키며, 공유된 식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지속될 뿐 아니라 단순화된 서사,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 방식, 허위 정보, 두려움을 통해 문화적으로 조건화됩니다. 역사적 기억이 희미해지고 민간인과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윤리 원리들이 약화할 때, 폭력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이 되거나 심지어 ‘박멸’로 정당화하기 쉬워집니다. 인류가 폭력적 힘의 문화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맥

락이며, 여기서 평화는 더 이상 말아야 할 책임으로 나타나지 않고 분쟁과 분쟁 사이의 취약하게 유지되는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엄격한 의미의 자위권(right to self-defense)을 침해하지 않는데도, 온갖 종류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나 자주 이용되어 온 ‘정당한 전쟁’(just war) 이론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82]. 인류는 대화, 외교, 용서같이 인간 생명을 증진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역량 있는 도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력, 폭력, 무기 사용은 언제나 민간인에게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관계의 빈곤을 반영합니다.

제제되지 않는 무력(Force without limits)

193. 군산복합체의 성장은 현재의 정치 지형을 규정하는 특징이 되었으며 다양한 국가 경제에서 핵심 부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 군사 기구, 정치적 결정 사이의 긴밀한 유대는 전쟁이 정치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나타나고 군비 시장이 군사적 결정 뒤에서 자율적 동력 역할을 하는 “무장된 국가”를 만듭니다. 전쟁 뒤에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수 산업과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정확히 분쟁을 양분 삼아 번창하는 시장에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긴장을 부추기는 데 기여하는 금융적 이익도 존재합니다.

194. 군사 무기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초래할 위협에 대한 인식이 데탕트(détente, 긴장 완화)와 군축 협상을 향한 경로를 발전시켰습니다. 불행히도 이 접근 방식은 뒤로 밀려났고, 핵무기 고도화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무기 사용에 덜 인내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70개국 이상의 지지와 함께 2021년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주요 핵강국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상징적 상태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ce)이 안보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광범위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통제하기 어렵고 핵 감축 협정들의 점진적 해체와 더불어, 그 사용을 더 실행가능한 옵션처럼 보이게 만드는 ‘소형’ 핵무기 개발을 수반하는 새로운 군비경쟁에 기여했습니다.

195. 동일한 논리가 재래식 전쟁에도 적용됩니다. 군사력, 취약한 외교적 이니셔티브, 이해 관계의 복잡성은 극도로 높은 인적·환경적 비용과 함께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분쟁에 기여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멈추는 것보다 훨씬 쉬우며, 그럼에도 분쟁 예방에 관한 논의는 비극적이게도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196. 상황은 지하드 그룹, 사설 민병대, 범죄 네트워크 같은 새로이 무장한 전투원들의 존재로 인해 더 불안정해지며, 이는 무력 사용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종식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흔히 이 그룹들은 막연한 이념적 동기와 구체적 경제적 이익을 뒤섞으며, 전쟁을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전체 세대를 위한 ‘삶의 방식’으로 변형시킵니다. 여기서 목적은 더 이상 결정적 승리가 아니라, 권력과 소득의 원천으로 분쟁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무기와 인공지능(Weap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197. 상술한 시나리오는 무기 체계,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무기 시스템의 끊임없는 개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좌는 최근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s systems) 배치를 더 쉽게 만드는 환경이 전쟁을 더 ‘실행 가능’하게 만들고 인간의 통제를 덜 받게 만든다는 것을 관찰해 왔습니다. 이는 합법적 자위의 경우에 무력을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리에 대한 위반입니다[183]. 이러한 이유로 전쟁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은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그러한 군비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윤리적 제약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184].

198.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일관성 있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듯이 “인공 도덕적 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s)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도덕적 판단은 계산으로 환원할 수 없는데, 양심, 개인적 책임, 그리고 타인을 인격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상 권한이나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인공 시스템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 어떤 알고리즘도 전쟁을 도덕적으로 용인하게 해선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분쟁의 본질적 비인간성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빨리 일어나게 하고 더 비인격적으로 생성하며(rendering), 폭력에 의존하는 문턱을 낮추고, 방어를 위협 예측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를 데이터로 축소할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폭력이 필연적이며 오직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에 우리를 길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축하는 인공 시스템 속에 가능한 한 가치와 건전한 판단을 주입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더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도덕적 생태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199. 포괄적(generic) 형태의 윤리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별을 위한 구체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개인 책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타격 결정이 자동화되거나 불투명해질 때, 책임을 포기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의 사슬은 식별가능하고 검증가능해야 하며 기술을 설계, 학습, 승인, 고용하는 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도덕적 타임 프레임(timeframe)에 속합니다. 인공지능이 의사 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속도와 효율성이 전쟁 상황에서 내려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의 최고 동인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민간인의 식별과 보호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공격을 촉진하는 그 어떤 기술도 분쟁의 도덕적 문턱을 낮춥니다. 표적 선택과 무력 사용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무방비한 인구에 미치는 영향력

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200. 이러한 기준들은 몇 가지 비타협적 요구 사항들을 낳습니다. 첫째, 전쟁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은 의사 결정 과정을 되짚어보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여, 책무성과 비난이 ‘기계’ 속으로 붕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살상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불투명하거나 자동화된 과정에 위임할 수 없으며, 효과적이고 자각적이며 책임 있는 인간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군비 경쟁을 억제하고 민간인과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인프라를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공유된 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자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multilateralism)

201. 권력의 문화는 다자 체제(multilateral system)의 위기에서도 비롯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공유된 미래라는 개념과 글로벌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들이 약화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조적 한계뿐 아니라, 그것들을 지원하고 개혁하거나 그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려는 공유 의지가 빈번히 결여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보를 이루는 대신, 우리는 20세기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이후 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 붕괴는 대화와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정치적 틀이 결여된, 지배적으로 경제적인 글로벌화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번영, 민주주의, 안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계화는 자동으로 일치와 평화를 생성하기보다 근본주의적이고 정체성 기반이며 민족주의적인 반응을 유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진정한 다자주의와 거리가 멀었으며, 대신 나타난 것은 지배적인 불신의 감정과 함께 무질서하고 갈등을 빚는 다극주의(multipolarism)였습니다.

202. 각 당사자가 자신을 보복 권리가 있는 피해자로 묘사하는 서사들로 자양분을 얻으며 적에 대항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유혹 또한 재부상해 왔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내가 먼저”, “친구 아니면 적”,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단순한 범주로 축소하는 것은 종종 무책임하고 민족 간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결정을 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로써 국제법의 힘은 “힘이 곧 정의”라는 주장으로 대체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거나 전쟁 범죄를 다루기 위한 관할 법원들이 종종 약화되거나 우회되며, 이는 정치 문화와 사회 응집력에 파멸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185].

203.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 구축은 부차적 역할로 강등되었습니다. 발전을 위한 협력, 군축, 분쟁 예방, 그리고 상호 신뢰 구축은 권력 정치의 명분 아래 방치됩니다. 인도주의 법의 성과들 또한 침해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침략에 대응할 때의 비례성 원리, 물, 식량 및 필수 재화에 대한 접근성 보호, 민간인(특히 어린이) 생명 존중은 과거의 순진한 유물로 간주되기에 이릅니다.

이른바 정치적 현실주의(A supposed political realism)

204. 우리는 중대한 영적·문화적 맹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 실용주의는 마치 과거와 단절된 일종의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듯이 우리 역사의 뿌리를 끊어내라고 촉구합니다. 중대한 도덕 원리들을 인용하는 이들조차 이 역사적 허무주의(nihilism)에 빠질 수 있으며, 20세기의 만행들이 결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한 역학이 새로운 구실 하에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유지되는 균형과 억제력의 마음가짐이 다시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냉전의 양면적 역학 체제와 대조적으로 무장 세력과 전장의 확산은 이 마음가짐을 점차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고조되는 분쟁들은 전쟁뿐 아니라 허위 정보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양분 삼는 캠페인이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경제, 금융, 사이버 전선에서도 진행되는 비대칭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군비 지출 증가는 불확실한 미래나 인지된 위협에 대한 유일한 응답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는 동안 진짜 비용은 보건, 교육, 사회 서비스를 위한 자원이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됩니다.

205. 이 문제들의 핵심에는 힘이 지배한다는 사고방식뿐 아니라 전쟁이 인간 본성의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문화적·인류학적 믿음에 기반한 거짓 현실주의(Realpoliti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멈추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황이 언제나 이와 같았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사는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연민을 잃어버린 평화 추구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인가입니다. 동일한 주장은 분쟁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과 사회에 전쟁 필연성에 대한 체념의 태도를 심고 평화와 대화를 위협을 무시하는 유토피아적이거나 비이성적 입장으로 일축하는 정치적 ‘현실주의’ 형태인 국제정치의 현실주의(Realpolitik)야말로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라 주장하고자 합니다. 사실 평화는 순진한 희망도 아니고 단지 전쟁의 부재만도 아닙니다. 대신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열매이고 언제나 가능합니다[187].

206. 이러한 분위기에서 허무주의와 실용주의는 서로 얹히고 결국 중대한 오류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와 정체성 기반의 광신주의는 비이성적 경제 정책들과 스스로 동맹을 맺는 한편, 정치는 흔히 허위 정보와 상대방을 비웃는 쪽으로 돌아서며 두려움과 원망을 체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점차 위협으로 인지되며, 이는 소유를 향한 갈망, 지배하려는 의지, 헤게모니적 야망, 권력 남용, 다른 이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겨 새로운 분쟁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186].

207. 그렇다면 이것이 아마도 과거 전쟁들보다 한층 더 위험한 새로운 전쟁들을 위한 비

육한 토양인데, 모든 윤리적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용납할 수 없던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 이제 거의 주저 없이 실행될 수 있는 반면, 국제 사회의 대응은 상황의 객관적 심각성보다 개별 정부의 이익에 점차 더 영향을 받습니다. 결정들은 이제 미디어 왜곡, 계산된 열광, 그리고 필연적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좌절과 추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꿈들(몽상)’을 통해 정당화되는 경제적 계산에 거의 전적으로 이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참되지 않으며 원리들은 공허한 말이라 믿게 될 때, 그들 마음속의 퓨즈는 불관용과 침략의 새로운 폭발을 향해 점화됩니다.

208.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안전장치 문제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습니다. 문화가 분쟁을 정상화하고 정당화할 때 위험한 경로가 열리며, 오늘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 유용성이나 안보라는 명분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긴장으로 점철된 국가들에서, 우리는 일부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에 주의를 돌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자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냉소적 도구로 무력 분쟁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9. 특별한 책임이 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이 분야의 모든 핵심 주체들—과학자, 기업주, 투자자, 학계 권위자, 정치인 등—은 자신들이 배양하는 기술적 진보(인공지능과 관련된 진보 포함)의 더 넓은 맥락에 대한 예리한 자각을 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책임적인 생각과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섹터(부문)만을 바라보는 데 머무를 때, 그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중립적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기만하며 특정 실험을 유도하는 궁극 목적에 관한 질문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의문스러운 프로젝트들, 즉 새로운 형태의 폭력, 조작, 지배를 부추기는 프로젝트들과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협력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의 문명 구축(Building the civilization of love)

210. 영구적 분쟁 상태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악이며 마땅히 그 이름대로 불려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어둡거나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악을 규탄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빛 안에서 바라보며, 그분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마태 28,18)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예정된 운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개인적·집단적 회개(conversion)의 기회로 여깁니다. 더욱이 우리는 작은 겨자씨가 심어지면 싹을 틔우고 자라는 하느님 나라의 권능을 믿습니다(마르 4,26-32 참조). 혼돈의 소란이 우리 주변 도처에 있는 동안, 선행은 땅으로부터 침묵 속에 자라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이사 43,19)

211. 더 깊이 돌아본 역사가 이를 확증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주님께서는 포기를 거부하는 남녀, 선을 행하는 데 인내하는 남녀,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화해의 경로를 여는 남녀를 일으키십니다. 성인들, 의로운 이들, 그리고 흔히 잊혀진 평화주의자들의 기억은 은총이 분쟁을 마법처럼 제거하진 않지만, 도리어 악에 대한 능동적 저항과 선을 행하는 일에서 놀라운 창의성에 영감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고 패배시킬 수 없음(요한 1,5 참조)을 이해하기에 단순히 그것을 수동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통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리스도인들은 선에 봉사하며 현실에 의미와 방향을 모두 부여하는 신학적 희망(theological hope)으로 지탱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We can all do our part)

212. 그러나 이 지점에서 교묘한 유혹이 출현할 수 있는데, 곧 문제들이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아 우리의 선택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흔히 현실주의로 위장한 고상한 형태의 체념입니다. 분명 모든 이가 차이를 만들어낼 동일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들,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이들, 제도를 이끄는 이들, 연구를 수행하는 이들, 교육자,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오직 자신들의 일상만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행동 영역이 있으며, 우리가 힘이 결정한다는 사고 방식을 양분으로 삼을지(비록 무관심, 냉소주의, 거짓말, 증오를 통해서일지라도), 아니면 평화적인 생각을 지킬지(진리, 절제, 근접성, 돌봄과 함께) 선택해야 하는 곳은 바로 정확히 거기이지 다른 곳이 아닙니다.

213. 20세기 가톨릭 작가 J.R.R. 톨킨은 그의 소설 중 하나의 주인공의 입을 빌려 우리의 책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 우리가 아는 발의 악을 뿌리 뽑아 뒤에 올 이들이 경작할 청정한 땅을 갖게 하는 것이다.”[187] 사랑의 문명은 단 한 번의 스펙터클한 제스처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미 상실에 맞서는 방어벽으로 봉사하는 작고 신실한 충성된 행동들의 총합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랑의 문명 구축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양상을 멈추어 성찰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피해 가지 않으면서, 저는 일상과 공적 책임을 향한 다섯 가지 경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곧 말의 무장 해제 필요성, 정의를 통한 평화 구축, 피해자 관점 채택, 건강한 현실주의 배양, 그리고 대화와 다자주의 복원입니다.

말의 무장 해제 필요성 (The need to disarm words)

214. 더 인간적인 문명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여는 우리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을 무장 해제하면 세상을 무장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은 거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적 상호 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발화(發話)된 말은 우리 기분을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각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방식, 타인에 대해 말하는 방식 속에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은 근본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말과 이미지의 전쟁에 ‘아니오’라 말해야 하며, 전쟁 패러다임을 거부해야 합니다.”[189]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가진 편견,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명백하거나 암묵적인 공격성과 관련하여 자기 양심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 불의를 규탄하고,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줄 때마다 공동선에 기여할 진정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정의를 통한 평화 구축(Building peace through justice)

215. 우리 모두는 모든 수준에서 평화의 토대인 정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이 없는 상태와 같은 아무 종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정의에서 비롯하는 참된 평화를 추구합니다. “개인의 정의와 모두의 평화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연결이 존재합니다.”[190]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 (시편 85[84],11)는 시편 구절을 주해하며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것을 멀리하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모든 이가 정의를 실천하려 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며 정의의 일들을 수행하라. 그것들은 서로 적대하지 않는다. 왜 그대 자신을 정의에 대항하는 위치에 세우는가? 여기, 예를 들어 정의가 그대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나 그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 그대는 들은 채 만 체한다. 남이 그대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그대 자신에 대해 남이 말하길 원치 않는 것들을 그대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 그대는 그리하여 평화에 도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정의를 실천하라!”[191]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자 관점 채택(Adopting the perspective of victims)

216. 인간으로 남기 위해 우리의 유보 조건들을 내려놓고 입장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몇몇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불의하며, 단지 우리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192]. 우리가 민간인 폭격, 병원, 학교 또는 핵심 인프라 공격,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인류 자체에 상처를 입히는 추문(scandals)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추상적 분석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입은 살을 만지

고”[193],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상처를 인정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비극적 사건들은 역사와 기억을 모두 요구하는데, 전자는 사실을 재진술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삶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217. 소통과 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의 관점과 목소리에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전쟁,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내재된 악의 심연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분쟁의 정상화를 거부하고, 인간 존엄성이 침해될 때 고개를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인정받고 경청할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194]. 이 목소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폭력적 소수를 제외하고 인류는 전쟁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 6세께서 상기시켜 주었듯이, 교회는 과거 전쟁에서 죽어간 이들의 목소리와 오늘날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느껴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새로운 분쟁의 전주곡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를 향한 호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195].

건강한 현실주의 함양(Cultivating a healthy realism)

218. 우리에게서 정치적 이상주의와 냉소주의 모두를 피하는 건강한 현실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사실들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그것들을 왜곡하며 재명명하는 경향이 있는 일종의 이상주의가 존재합니다. 이의 주창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확신에 맞춰 구축된 현실에 머뭙니다. 반대로 무력이 지배하므로 그것이 언제나 지배할 것이라 주장하며 관찰과 체념을 혼동하는 저속한 형태의 현실주의도 존재합니다. 진정한 현실주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달성될 수 있는 것과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이익, 두려움, 제약, 권력 동학을 명확히 식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치를 도덕으로 축소하지 않으며 폭력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검증 가능한 보장, 인내로운 협상, 분쟁 예방, 민간인 보호를 통해 평화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되게 만들 실행 가능한 경로를 추구합니다.

대화 복원(Reviving dialogue)

219. 사랑의 문명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과 민족 간 공존의 일차 수단이며 공개 분쟁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에 비오 12세 교황은 평화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잃지 않으나 전쟁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고 끈기 있는 대화가 언제나 명예로운 해결책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대화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196].

220. 참으로 대화는 인간 삶의 평범한 부분이며 단지 국가 간의 관계에만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청, 열린 품행,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심지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바탕 위에 구축된 형제애의 유대를 구축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과, 다른 이들과, 이방인들과 이주민들과 함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한다면 전쟁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21. 정치적 수준에서는 “권력의 문화”에서 대화와 외교가 분쟁 해결의 표준적 수단이 되는 진정한 “협상의 문화”(culture of negotiation)로 전환하는게 시급합니다. 조르조 라 피라는 전쟁 방법이 평화의 방법, 즉 “협상, 만남, 수렴의 방법, 다시 말해 진정으로 인간적인 방법!”[197]으로 대체되길 소망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공동의 미래를 공유한다는 자각은 협상의 문화가 폭력의 악순환에서 인류를 점차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점차 더 공유된 정치적·문화적 투신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222. 영예와 통치의 책임을 지닌 분들에게 저는 저의 베드로 직무 시작 때 했던 말씀을 반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계의 민족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그들의 리더들에게 저는 마음을 다해 호소합니다. 만납시다, 이야기합시다, 협상합시다! 전쟁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무기는 침묵할 수 있고 침묵해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이는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아니라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이웃은 먼저 우리 적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 인간이며, 미워해야 할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른 남녀입니다. 세상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는 폭력적 사고방식에 너무나 전형적인 마니교적 개념들을 거부합시다.”[198]

223. 폭력적 사고 방식을 거부하는 데 있어 종교 간 대화(interreligious dialogue)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대한 영적 경로들의 핵심에 평화의 담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99]. 반면 테러리즘, 폭력 또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은 그분의 참된 본성을 배반하는 것인데,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 종교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200].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환기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승한(예를 들어 알 아즈하르의 대이맘과의 대화를 통해) “아시시의 정신”(spirit of Assisi)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적 전통의 가장 진정한 원천을 길어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며, 거기에는 ‘거룩한 증오’(sanctified hatred)의 여지가 없습니다[201].

외교와 다자주의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diplomacy and multilateralism)

224. 국제 관계에서 대화는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의 유대를 재구축하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외교적 도구입니다.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충동적 방송, 공격적 수사(修辭), 권력 정치에 직면하여 “외교의 소명은 협상하기에 덜 편하다고 간주되거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

다고 여겨지는 인터로쿠터(대화 상대방)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와 대화를 촉진하는 것”[202]입니다. 그러므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비록 가장 희미한 선의의 징후일지라도 이를 양분 삼아 평화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작은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225. 사이버 공간 역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조직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조작, 영향력 행사는 공개 무장 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국가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영역에서는 책임의 소재가 종종 불확실합니다. 누가 공격을 감행했는지 불명확할 때 공격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대응, 오판, 고조(高潮)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교는 민간인과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사용에 관한 공유 규제들을 협상하며 이 새로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26. 국제 조직들, 특히 유엔은 민족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족들의 통합적 발전, 가장 취약한 이들의 보호, 군축, 피조물 돌봄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문명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제 사회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난민과 소수자 권리를 방어하며, 자원을 군사 지출에서 인간 발전으로 재배분하고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좌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동반하는 한편, 유엔과 국제 정치 시스템의 현재 취약성이 심오한 개혁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인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조정의 문제가 아닌데, 민족들의 윤리적 토대와도 관계되는 확신과 가치의 위기가 다자주의를 참된 공동선으로 지향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202].

227. 국제적 맥락에서 사도좌의 외교는 복음의 자비(mercy) 원리를 정치적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이것이 사도좌가 인류 봉사에 참여하는 경로 중 하나이며, 이로써 사랑과 진리의 이름으로 양심에 호소하고, 각 사람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가난한 이들, 이주민들, 전쟁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발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황의 외교는 교회의 가톨릭성(catholicity, 보편성)을 표현하고 신기술 역시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랑의 문명 구축에 기여합니다.

기도와 희망 (Praying and hoping)

228. 책임을 지는 이러한 경로들은 기도로 지탱되며, 기도를 풍요롭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 각자에 평화는 일차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203]으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무장하지 않았고 무장을 해제시키며, 겸손하고 끈기 있는 평화입니다.”[204] 이 말씀과 함께 저는 베드로 좌에 선출된 날 교회와 세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반복하고 모든 이에게 이 선

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초대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우리 관계, 사회 속에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일에 결코 지치지 맙시다.

결론

(CONCLUSION)

229.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지을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1코린 3,10). 이 말씀으로 성 바오로께서는 코린토교회 신자들에게 일치를 보존하라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건설하고 있는지 성찰해 왔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개개인을 수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성찰의 마무리에서, 나는 복음의 빛으로 이 시대적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냉철하면서도 요청이 큰 많은 그리스도인 삶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경로는 하느님 계획을 묵상하고, 성체성사에 동참함으로써 교회 일치를 살아가며, 공동선에 중심을 둔 세상을 건설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일치하여 기도함으로써 나타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230. 우리 세상은 시장과 영향력의 영역을 장악하려는 시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종종 안심시키는 수사와 유혹적 이데올로기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가 마니피캇(Magnificat)을 통해 찬미했던 바와 같이, 하느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이어진다고 선포하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접근 방식을 갈망합니다.[205] 이 자비의 계획은 알고리즘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져온 신속하고 불안정한 변화들 속에서도 오늘날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 펼쳐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복음에 따라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이 됩니다.

231.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강생의 신비,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신비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취약한 성자의 육신은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침묵으로 내몰린 수많은 형제 자매의 육신을 환기시킵니다.[206]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통해 평화의 선물이 역설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옵니다. 평화의 선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통해 들어오며, 우리가 어린이들의 눈물, 노인들의 취약함, 피해자들의 침묵,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르고 싶지 않은 악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투쟁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깨어납니다.[207] 이 상처 받았지만 사랑받는 육신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개방성과 친교를 통해 성취되는 삶의 진정한 인류애를 보여 주시며, 이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도록 인도합니다.[208]

232. 겉보기에 향상되고 거의 탈육체화된 인류를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과 일부 포스트

휴머니즘 흐름의 약속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염원, 곧 한계와 고통에 덜 노출된 더 충만한 삶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강생은 다른 경로를 열어줍니다. 한편으로 옛 이데올로기와 새 이데올로기 모두는 인류가 기술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타인보다 우뚝 서라고 촉구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조건에 들어오시는 신비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약속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모든 형태의 노예제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 역사 속으로 내려오십니다.[209] 그분은 우리 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를 구원을 위한 배경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은 순간이나 인간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신비 안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느님, 유다 지방을 살아가고 여행하신 하느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느님, 무덤에 누워 계신 죽은 하느님을 모시고 경배합니다.”[210] 따라서 **인류의 미래는 가까이 다가오고, 세상의 짐을 공유하며, 관계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이 신성한 방식을 확대하는 능력에서 기준을 찾습니다.** “오 놀라워라... 인간이 하느님이시고, 이 하느님-인간이 그 모든 단계를 거치고, 그 모든 상태를 견디며, 당신 안에서 그것들을 고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신화(deify) 하시는 도대!”[211]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향상된 자급자족이 아니라, 해방하는 관계이자 변혁하는 친교인 **신성한 사랑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내려와 그것을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33. 이러한 이유로, 신앙인들 가운데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저는 모든 이에게 성자의 얼굴 안에서, 시시대 또한 비추어 주는 인류의 위대함을 묵상할 것을 정중히 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제한하는 기술적 과정들에 무심한 관찰자가 되기보다, 창조의 과업에 협력하도록 불리었습니다.[212]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새겨진 존엄성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능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계산 시스템일지라도 자신을 내주는 마음이나, 선과 악을 식별하는 양심을 창조할 순 없습니다. 기계가 효율성 면에서 뛰어날지라도, **바라봐 달라고 청하는 인간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인간의 얼굴은 역사가 향해 가는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총괄’(recapitulation)의 신비, 곧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등 모든 것을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섭하기로 결정하셨다는 확실성입니다(에페 1,10 참조). 이 계획 안에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상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단 하나이신 분 안에서 정화되고 재결합될 것이며, 그분은 삶의 모든 파편, 모든 눈물, 그리고 모든 진정으로 인간적인 성취를 모으시어, 그것들을 허무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된 상태로 아버지께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234.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성체성사의 영성, 즉 사랑 안에서의 교회 일치의 영성입니다

다. 강생과 파스카 신비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조건에 들어오시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키심을 드러냅니다. 이 선물은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며 활발히 작용하는데,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내주시고 교회를 함께 모으시어, 그분 봉헌이 일치 원리의 원천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또한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든 이들과 일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연대성 또한 이 친교로부터 발생합니다.[213]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지역 교회의 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했듯이, 제단 위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일치하는 성사입니다.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형상일 뿐이나, 파악되는 것은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고 싶다면, 신자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1코린 12,27).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라면, 주님 식탁에 놓인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사이며, 여러분이 받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성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와 같이 응답함으로써 그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멘’이 진실해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십시오!”[214]

235. 우리가 전례 안에서 고백하는 ‘아멘’, 우리가 먹는 몸과 마시는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형성합니다. 성체성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님과 만남이면서도 결코 단순한 개인적 경건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215]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자 그분의 지체들이고 그분의 몸이라는 현실의 가시적 발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많고 다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한 분 안에서 하나’(In illo uno unum)입니다.[216] **성체성사는 빈곤이나 소외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함께, 우리를 정의와 나눔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기술적 네트워크가 배제, 고립, 의존성을 낳을 수 있는 반면, 성체성사로 양육되는 교회는 인간적 연결을 보존하고,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주며, 과정들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겨냥하도록 보장하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시적으로 만들도록 불리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건설 현장

236.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영성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에 이끌려 공동선을 위해 세상을 건설하는 데 투신하는 ‘**지혜로운 건축가**’의 영성입니다(1코린 3,10 참조). 이 성찰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217] 우리 시대의 건설 과업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규칙은 인간의 한계를 자연스럽고 긍정적 현실로 수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유된 책임과 복음의 특징을 지닌 언어가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 성찰의 끝에서 문명화된 사랑을 위한 계획이 더 명확해질 수 있으며,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께 견고히 결합된 많은 산 돌들 덕분에 건설 현장은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1베드 2,4-6

참조). 이 과업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감상주의로 도피하거나 우리만의 작은 세계로 퇴거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불리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충실해야 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관계를 함양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237. 진리에 충실합시다! 정보, 의견, 이미지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점차 정교해지는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고 있습니다.[218] 이러한 맥락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호하며, 즉각적 결과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느님과 인류에 관한 진리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현실이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적 이익에 따라 형성되어야 할 단순한 물질인 것처럼 취급하는, 인류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219] 대신에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관계적 인간중심주의’(situated anthropocentrism)라 부른 것,[220] 곧 인간을 다른 생명체들 및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 네트워크에 내포된 피조물로 인식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충실성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우리 공동의 집의 미래를 모두 수호할 수 있는, 지혜라는 틀 안에서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238.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교육에 투자합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신앙 교육과 복음에 따른 삶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디지털 세계와 인간적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새로운 대륙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는 신앙 안에서 성숙한 관대한 선교사들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광범위하고 공유된 교육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아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육의 장인으로서 자신들의 소명을 어른들이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도록 동반하고, 그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내면의 자유를 기르는 것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은 구체적 형태의 자비이며 그들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입니다. 기술적 진화가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집단적 책임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새로운 세대에 가르치는 것은 공동선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봉사 중 하나가 됩니다.

239. 관계를 함양합시다! 속도와 파편화를 선호하는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세심한 마음, 친절할 말, 그리고 다정함을 베풀 수 있는 손길로부터 돌봄과 인정을 받기를 열망합니다.** 디지털 문화는 연결을 배가하고 상호 작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진정으로 가까이 계심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이와 식사하는 것,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임, 외로운 이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물리적 현존이 여전히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의 신체가 하느님의 거처이자 성령의 성전이라 계속해서 믿는 인류의 표징입니다. **영광과 취약함 사이의 이 계약이 바로 현대 문화가 제**

공하는 인간학적 모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240. 정의와 평화를 사랑합시다! 커뮤니케이션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바로 그 기술들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를 낳으며, 갈등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모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적 또는 경제적 결정은 영적 식별을 포함해야 하며, AI의 발전이 정의와 참여를 증진하는지 아니면 소수 선택된 이들의 손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디지털 생산의 공급망,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 뒤에 숨겨진 노동 조건, 그리고 조작과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남기는 메커니즘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공정성, 참여,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돌봄을 증진하는 실천적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래에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께 뿌리를 둔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믿는 이들은 불평등의 자리에 더 큰 정의가 자리하도록, 그리고 전쟁 산업이 평화의 장인 정신으로 대체되도록 보장하는 데 투신합니다.[221]

241. 미래를 바라보며, 나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동반자이자 안내자로 선택했던 느헤미야의 이미지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도시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기도로 가져갔으며, 하느님 앞에서 식별하고, 도움을 청하고, 돌아갈 허락을 받고, 과업을 조직하고, 내부와 외부 저항에 맞서며 백성들의 원조를 받아 예루살렘의 성벽을 벽돌로 한 장 한 장 다시 쌓았습니다. 이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나는 그에게서 우리의 고유한 소명의 놀라운 비유를 발견하는데, 이는 사회적·문화적 균열에서 수동적 구경꾼이 되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단순한 평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위협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의 건설 현장들(연구 실험실, 기술 기업, 학교, 언론, 제도, 지역 공동체)에 들어갈 준비가 된 남성과 여성의 소명**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 경청과 용기, 기도와 책임을 결합하도록 불리었으며, 그리하여 기술관료적 사고방식이나 당파적 이익이 팽배해 보일 때라도 인간의 도시가 살기에 더 적합한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242. 예루살렘 재건의 이미지는 신약성경이 약속하는 거룩한 도성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된” 채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선물로 내려옵니다(묵시 21,2 참조). 예루살렘 성벽은 더 이상 방어용 요새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의 귀중한 장식품입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부지런히 지켰던 그 성문들은 모든 민족을 향해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모두에게 빛과 생명을 줍니다. 도성은 생명수가 목마른 이들에게 제공되고, 그 잎사귀들이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생명나무가 있는 새로운 에덴입니다(묵시 22,2 참조).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비전은 우리에게 격려, 곧 우리의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일하라는 부르심으로 제시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노래: 마니파캣

243.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계획을 묵상하는 신앙,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일치시키는 사랑,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탱하는 희망을 고려한 다음, **그리스도인 삶의 이 프로그램을 위한 네 번째 기도는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 투신에 수반됩니다. 자신이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알리는 엘리사벳 앞에서 마리아는 찬미와 기쁨의 찬가를 터뜨립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구원 계획을 위해 젊고 가난하며 겸손한 처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은 주님을 찬송하고 그녀의 영은 그녀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이 계시의 렌즈를 통해 역사의 모든 것을 갑자기 바라봅니다. 그녀 주변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녀 시대의 사회·정치적 상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로마인들은 계속해 그녀의 땅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녀의 백성들은 여전히 종속되어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이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 팔의 큰 힘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이들을 들어 올리셨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셨으며,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비천한 이들의 편을 드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는 인간 사건들의 불투명한 맥락 속에 종종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비밀스러운 힘은 결국 드러날 운명입니다.”[222]

244.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과업을 인식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깨어지고 세상이 왜곡하는 지점들, 곧 겸손한 자와 권세 있는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 사이의 대조”로 우리의 시선을 지향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더 낮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곧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권력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어린 이들의 시각을 통해 역사를 보며, 과부, 고아, 이방인, 상처받은 아이, 망명자, 그리고 도망자의 관점에서 역사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223] 이와 같이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구원의 시인이자 예언자”가 되시는데, 그녀의 입술 위에서 “지금껏 표현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찬가인 마니파캣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로부터 그 기원과 힘을 여전히 끌어 올리는 역사적·사회적 결과인 그리스도교 경제의 변혁적 비전을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그녀입니다.”[224]

245.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우리 세상에서 “희망의 직조공”이 됩시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여, 예수님 현존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그분의 나라가 형체를 갖게 합시다. 일상생활의 겸손한 충실함 속에서, AI 시대조차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문명화된 사랑을 가져다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계속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강생의 빛 안에서 모든 시대에 구원사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제공하십니

다. 나는 우리의 갈망을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니피캇의 여인에 의탁하며, 그녀가 이 변화의 시간을 거치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 안에 복음에 대한 참된 신앙을 보존하시어,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인류의 위대함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교황 재위 제2년, 2026년 5월 15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레오 14세 교황

-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2항: AAS 58 (1966), 1042면.
- [2] 같은 글, 11항 참조: AAS 58 (1966), 1033-1034면.
-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항: AAS 57 (1965), 5면.
- [4]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22항 참조: ASS 23 (1890-1891), 653면.
- [5]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69항: AAS 101 (2009), 702면.
- [6]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104항: AAS 107 (2015), 888면.
- [7] 같은 글.
- [8]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Confessiones), I, 1, 1: CCSL 27, Turnhout 1981, 1면.
- [9]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183항: AAS 105 (2013), 1097면.
- [1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36항: AAS 58 (1966), 1054면; 평신도 사도직 교령 《평신도 사도직》(Apostolicam Actuositatem), 7항 참조: AAS 58 (1966), 843-844면.
-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44항: AAS 58 (1966), 1065면.
- [12]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257항: AAS 105 (2013), 1123면.
- [13] 성 요한 바오로 2세, 자발 교서 《사회 과학》(Socialium Scientiarum, 1994년 1월 1일): AAS 86 (1994), 209면.
- [14]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61항: AAS 107 (2015), 871면.
- [15]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41항 참조: AAS 80 (1988), 570-572면.
- [16]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제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년 11월 10일), 35항: AAS 87 (1995), 27면.

- [17] ‘프로 폰티피체 체네시무스 안누스 재단’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25년 5월 17일): AAS 117 (2025), 696면.
- [18]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222항: AAS 105 (2013), 1111면.
- [19] 같은 글, 236항 참조: AAS 105 (2013), 1115면;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15항: AAS 112 (2020), 1045-1046면.
- [2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3항: AAS 57 (1965), 17면.
- [21] 성 바오로 6세, 교황 서한 《80주년》(Octogesima Adveniens, 1971년 5월 14일), 4항 참조: AAS 63 (1971), 403면.
- [22]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243항 참조: AAS 105 (2013), 1118면.
- [23] 비오 12세, 교황 권고 《우리 마음 안에》(Menti Nostrae, 1950년 9월 23일) 참조: AAS 42 (1950), 657-702면.
- [24]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5항: AAS 83 (1991), 799면.
- [25] 비오 11세,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 1931년 5월 15일), 39항: AAS 23 (1931), 189면; 비오 12세, 《‘새로운 사태’ 반포 50주년 라디오 담화》 참조: AAS 33 (1941), 198면.
- [26] 비오 12세, 추기경단과 로마 고위성직자에게 한 연설(1940년 12월 24일) 참조: AAS 33 (1941), 13면.
- [27] 성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년 5월 15일), 2-3항 참조: AAS 53 (1961), 402면.
- [28] 성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87항 참조: AAS 55 (1963), 301면.
- [2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6항 참조: AAS 58 (1966), 1046-1047면.
- [3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2항 참조: AAS 58 (1966), 930-931면.
- [31] 성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14항: AAS 59 (1967), 264면.
- [32] 같은 글, 76항: AAS 59 (1967), 299면.
- [33] 성 바오로 6세, 교황 서한 《80주년》(Octogesima Adveniens, 1971년 5월 14일), 4-7항 참조: AAS 63 (1971), 404-406면.
- [34]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36항: AAS 80 (1988), 561면.
- [35]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 노동》(Laborem Exercens, 1981년 9월 14일), 19항 참조: AAS 73 (1981), 625-629면.
- [36] 같은 글, 10항 참조: AAS 73 (1981), 600-602면.
- [37]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14항 참조: AAS 80 (1988), 526-528면.

- [38] 같은 글, 16항 참조: AAS 80 (1988), 531면.
- [39] 같은 글, 31-33항 참조: AAS 80 (1988), 555-559면.
- [40]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46항 참조: AAS 83 (1991), 850-851면.
- [41] 같은 글, 42항 참조: AAS 83 (1991), 844-846면.
- [42]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21항: AAS 101 (2009), 656면.
- [43] 같은 글, 22항 참조: AAS 101 (2009), 657면.
- [44] 같은 글, 24항 참조: AAS 101 (2009), 658-659면.
- [45] 같은 글, 36항 참조: AAS 101 (2009), 671-672면.
- [46] 같은 글, 2항: AAS 101 (2009), 642면.
- [47]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198항 참조: AAS 105 (2013), 1103면.
- [48]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49항: AAS 107 (2015), 866면.
- [49]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27항: AAS 112 (2020), 1013면.
- [50] 프란치스코, 회칙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 2024년 10월 24일), 167항: AAS 116 (2024), 1421면.
- [51]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바티칸 시국 2004, 32항 참조.
- [5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4항: AAS 58 (1966), 1045면.
- [53] 같은 글, 22항: AAS 58 (1966), 1042면.
- [54]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38항 참조.
- [55]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년 3월 4일), 14항: AAS 71 (1979), 284면.
- [56]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11항 참조: AAS 101 (2009), 647-648면.
- [57]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31항: AAS 85 (1993), 1159면.
- [5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6항 참조: AAS 58 (1966), 1046-1047면.
- [59]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11항 참조: AAS 83 (1991), 806-807면.
- [60] 신앙교리부, 선언 《무한한 존엄》(Dignitas Infinita, 2024년 4월 2일), 7항 참조: AAS 116 (2024), 592-593면.
- [61] 같은 글, 8항 참조: AAS 116 (2024), 593-594면.
- [62] 같은 글, 1항: AAS 116 (2024), 589-590면.
- [63] 성 요한 바오로 2세, 오스나브뤼크 대성당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한 삼종기도 (1980년 11월 16일):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vol. III/2, 바티칸 시국 1980, 1232면 참조.

- [64]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52항.
- [65]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50차 유엔 총회 연설 (1995년 10월 5일), 2항 참조: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vol. XVIII/2, 바티칸 시국 1998, 731면.
- [66]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34차 유엔 총회 연설 (1979년 10월 2일), 7항: AAS 71 (1979), 1148면.
- [67]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32세계 평화의 날 담화 (1999년 1월 1일), 3항: AAS 91 (1999), 379면.
- [68] 성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5항 참조: AAS 55 (1963), 259면.
- [69] 성 바오로 6세, 국제 인권 회의에 보낸 담화 (1968년 4월 15일): AAS 60 (1968), 285면.
- [70]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2항 참조: AAS 87 (1995), 402면.
- [7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7항 참조: AAS 58 (1966), 1047-1048면;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80항 참조: AAS 85 (1993), 1197-1198면;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7-28항 참조: AAS 87 (1995), 408-427면.
- [72]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08항: AAS 112 (2020), 1043면.
- [73] 같은 글, 209항 참조: AAS 112 (2020), 1043-1044면.
- [74] 같은 글, 23항: AAS 112 (2020), 977면.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212항 참조: AAS 105 (2013), 1108면.
- [75]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 2007년 2월 22일), 83항: AAS 99 (2007), 169면.
- [7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6항, AAS 58 (1966), 1046-1047면.
- [77]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64항 참조.
- [78]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235항: AAS 105 (2013), 1115면.
- [79]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05항: AAS 112 (2020), 1005면.
- [80]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38항: AAS 80 (1988), 564면.
- [81]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220항: AAS 105 (2013), 1110면.
- [8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69항.
- [83]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6항: AAS 112 (2020), 974면.
- [84]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50차 유엔 총회 연설 (1995년 10월 5일), 8항 참조: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vol. XVIII/2, 735면.
- [85]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71항.
- [86]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31항: AAS 83

(1991), 831면.

[87] 성 요한 바오로 2세, 헤시페 농민 미사 강론 (1980년 7월 7일), 4항: AAS 72 (1980), 926면.

[88]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년 9월 14일), 19항: AAS 73 (1981), 626면.

[89]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93항: AAS 107 (2015), 884면;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20항 참조: AAS 112 (2020), 1010면.

[90]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189항: AAS 105 (2013), 1099면.

[91]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87항 참조.

[92]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26항 참조: ASS 23 (1890-1891), 656면.

[93]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11항 참조: AAS 83 (1991), 806-807면.

[94] 같은 글 참조.

[95] 같은 글, 48항 참조: AAS 83 (1991), 852-854면.

[96]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69항 참조: AAS 112 (2020), 1028면.

[97] 같은 글, 168항 참조: AAS 112 (2020), 1027-1028면.

[98] 성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17항 참조: AAS 59 (1967), 265-266면.

[99]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32항 및 54항: AAS 112 (2020), 980면 및 988면.

[100]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58항 참조: AAS 101 (2009), 693-694면.

[101]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16항: AAS 112 (2020), 1009면.

[102]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38항: AAS 80 (1988), 564면.

[103]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16항: AAS 112 (2020), 1009면.

[104]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48항 참조: AAS 101 (2009), 685면.

[10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5항 참조: AAS 58 (1966), 1045-1046면.

[106]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42항 참조: AAS 80 (1988), 572-574면.

[107]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53항: AAS 105 (2013), 1042면.

[108]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36-37항 참조: AAS 80 (1988), 561-564면.

[109] 프란치스코,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2024년 9월 29일) 참조: AAS 116 (2024), 735면.

[110] 성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14항: AAS 59 (1967), 264면.

[111] 같은 글, 17항 참조: AAS 59 (1967), 265-266면;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25-127항 참조: AAS 112 (2020), 1012-1013면.

[112] 성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14항 참조: AAS 59 (1967), 264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주재 외교단 연설 (2007년 1월 8일): AAS 99 (2007), 73면; 프란치스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제3차 토착민 포럼 참가자 연설 (2017년 2월 15일): AAS 109 (2017), 244-245면.

[113]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 최종 문서 (2024년 10월 26일), 17항.

[114] 같은 문서, 11항 참조.

[115] 같은 문서, 103-108항 참조.

[116] 같은 문서, 100-101항 참조.

[117]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94항 참조: AAS 112 (2020), 1001면.

[118]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53항 참조.

[119]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106-109항 참조: AAS 107 (2015), 889-891면.

[120] 로마노 가르디니, 《근대의 종말》(Das Ende der Neuzeit), Würzburg 1951, 89면.

[121] 성 바오로 6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창립 25주년 연설 (1970년 11월 16일): AAS 62 (1970), 833면.

[122] 프란치스코, ‘포용적 자본주의 협의회’ 연설 (2019년 11월 11일): L'Osservatore Romano, 2019년 11월 11-12일자, 8면 참조.

[123] 신앙교리부-문화교육부, 공동 설명서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 2025년 1월 14일) 참조: AAS 117 (2025), 159-210면; 프란치스코, 제57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3년 12월 8일): AAS 116 (2024), 54-64면; 프란치스코, 제58세계 홍보의 날 담화 (2024년 1월 24일): AAS 116 (2024), 261-266면; 프란치스코, G7 인공지능 세션 연설: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운 도구” (2024년 6월 14일): AAS 116 (2024), 866-875면; 국제신학위원회,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 인류의 미래 시나리오에 직면한 그리스도교 인류학 고찰》(Quo vadis, humanitas?, 2026년 2월 9일); 제60세계 홍보의 날 담화 (2026년 1월 24일): L'Osservatore Romano, 2026년 1월 24일자, 2-3면.

[124] 신앙교리부-문화교육부, 공동 설명서 《고대와 현대》(Antiqua et Nova, 2025년 1월 14일), 96항 참조: AAS 117 (2025), 201면.

[125] 프란치스코, 문화교육부가 주최한 ‘미네르바 대화’ 미팅 참가자 연설 (2023년 3월 27일): AAS 115 (2023), 465면.

[126] 신앙교리부-문화교육부, 공동 설명서 《고대와 현대》(Antiqua et Nova, 2025년 1월 14일), 41항 참조: AAS 117 (2025), 178면.

[127] 같은 글, 44-45항 참조: AAS 117 (2025), 179-180면.

[128]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40항 참조: AAS 83 (1991), 843면.

- [129] 국제신학위원회,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 인류의 미래 시나리오에 직면한 그리스도교 인류학 고찰》(2026년 2월 9일), 63항 참조.
- [130] 성 바오로 6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창립 25주년 담화 (1970년 11월 16일) 참조: AAS 62 (1970), 833면.
- [131] 국제신학위원회,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 인류의 미래 시나리오에 직면한 그리스도교 인류학 고찰》(2026년 2월 9일), 3항.
- [132] “우리가 마음을 평가절하하면, 마음에서 우려나와 말하는 것, 마음을 다해 행동하는 것, 마음을 가꾸고 치유하는 것이 지닌 의미 또한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성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담화를 놓치게 되며, 타인과의 만남이 주는 풍요로움과 시(詩)적 신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역사와 우리 자신의 과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개인사(史)는 마음으로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르면 오직 그것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회칙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 2024년 10월 24일), 11항: AAS 116 (2024), 1372면.
- [133]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1963, 213면.
- [134]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II, q. 112, a. 1, co; q. 114, a. 5, co.: ed. Leonina, VII, Rome 1892, 323 및 349면.
- [135] 같은 글, q. 114, a. 1, co 참조: ed. Leonina, VII, 344면.
- [136] 성 토마스 아퀴나스, 《보에티우스 삼위일체론 주해》(Super Boetium de Trinitate), q. 1, a. 2, ad 3: ed. Leonina, L, Rome 1992, 96면;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 q. 7, a. 1, ad 3: ed. Leonina, IV, Rome 1888, 72면.
- [137]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8항: AAS 105 (2013), 1022면.
- [138]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년 3월 4일), 15항: AAS 71 (1979), 286-287면.
- [139] 성 아우구스티노, 《신국론》(De civitate Dei), XIV, 28: CCSL 48, Turnhout 1955, 451면.
- [140]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34항: AAS 101 (2009), 668-669면.
- [141]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32항: AAS 85 (1993), 1159면.
- [142]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07항: AAS 112 (2020), 1043면.
- [143]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III, New York 1962, 474면.
- [144] 언론 매체 대표들과의 만남 연설 (2025년 5월 12일): AAS 117 (2025), 681-682면.
- [145] 베네딕토 16세, 제47세계 홍보의 날 담화 (2013년 1월 24일): AAS 105 (2013), 183면.
- [146] 프란치스코, 필립 풀렐라와 발렌티나 알라즈라키 기자에게 피오 9세 기사단 대십자 훈장을 수여하며 한 연설 (2021년 11월 13일): L'Osservatore Romano, 2021년 11월 13일자, 12면.
- [147] 플라톤, 《서간집》(Letter VII), 344b-c 참조: ed. Souilhé, XIII/1, Paris 1931 (CUF, Série grecque 63), 54면.
- [148] “인공지능 시대의 아동과 청소년 존엄성” 컨퍼런스 참가자 대상 연설 (2025년 11월 13일) 참조: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1월 13일자, 3면.

- [149] RCS 아카데미 자문위원회 위원 대상 연설 (2025년 11월 7일) 참조: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1월 7일자, 4면.
- [150]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 노동》(Laborem Exercens, 1981년 9월 14일), 3항: AAS 73 (1981), 584면.
- [151]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128항 참조: AAS 107 (2015), 898면.
- [152] 신앙교리부-문화교육부, 공동 설명서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 2025년 1월 14일), 67항: AAS 117 (2025), 188-189면.
- [153]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 노동》(Laborem Exercens, 1981년 9월 14일), 18항 참조: AAS 73 (1981), 622-625면.
- [154]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109항 참조: AAS 107 (2015), 891면.
- [155]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32항 참조: AAS 101 (2009), 666면.
- [156]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268항 참조.
- [157]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64항 참조: AAS 101 (2009), 698면.
- [158]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129항 참조: AAS 107 (2015), 899면.
- [159] 같은 글 참조.
- [160]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08항 참조: AAS 112 (2020), 1006면.
- [161] 신앙교리부-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 《경제 금융 시스템의 일부 측면에 대한 윤리적 식별을 위한 고려 사항》(Oeconomicae et Pecuniariae Quaestiones, 2018년 1월 6일), 6항 참조: AAS 110 (2018), 772면.
- [162] 프란치스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직원 대상 인사말 (2019년 2월 14일): AAS 111 (2019), 309면.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22항 참조: AAS 101 (2009), 657면.
- [163] 같은 글, 36항 참조: AAS 101 (2009), 671-672면.
- [164]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204항 참조: AAS 105 (2013), 1105-1106면.
- [165] 성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87항 참조: AAS 59 (1967), 299면.
- [166]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39항 참조: AAS 83 (1991), 841면.
- [167]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211항 참조.
- [168] 성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서한 《가정 공동체》(Gratissimam Sane, 1994년 2월 2일), 17항 참조: AAS 86 (1994), 903-906면.
- [169] 미국가톨릭주교회의, 《빛의 자녀들: 청장년 사목을 위한 사목 계획》(Sons and Daughters of the Light), Washington D.C., 1996, I, 3 참조.
- [170]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290항 참조.

- [171] 같은 책, 214항 참조.
- [172] 프란치스코, 제4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14년 12월 8일), 4항 참조: AAS 107 (2015), 70-71면.
- [173] 국제신학위원회, 《기억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Memory and Reconciliation), 바티칸 시국 2000, 5.3장 참조.
- [174] 에우제니오 4세 교황 칙서 《교회의 법령》(Sicut Dudum, 1435년 1월 13일) 및 《우리가 받은 아들인 바에 따라》(Etsi Suscepti, 1442년 1월 9일), 그리고 니콜라오 5세의 교황 칙서 《다양한 재앙들》(Dum Diversas, 1452년 6월 18일) 및 《로마 교황》(Romanus Pontifex, 1455년 1월 8일) 참조. 때때로 정치적, 심지어 경제적 필요가 복음의 요구보다 우선되기도 했습니다. 복음화의 긴급한 필요성은 종종 세속 권력의 요구와 타협하거나 오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예제와 그리스도교 양심의 모순적인 불상사가 상대화되었습니다.
- [175] 레오 13세, 회칙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서》(In Plurimis, 1888년 5월 5일), Acta Leonis XIII, VIII, Rome, 1889, 169-192면 참조. 1866년까지만 해도 성부(검사성성)가 노예제의 도덕적 측면과 부도덕한 측면을 구별하면서 전면적인 처벌을 유예했던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라 민족 국가의 교황 대리국장 마사리아 몬시뇰의 여러 의문점에 대한 성부 지침, 1866년 4월, 질문 15번에 대한 응답.
- [176] 성 요한 바오로 2세, 대희년 선포 칙서 《강생의 신비》(Incarnationis Mysterium, 1998년 11월 29일), 11항 참조: AAS 91 (1999), 139-141면.
- [177] 성 바오로 6세, 부활 삼종기도(Regina Caeli, 1970년 5월 17일): Insegnamenti di Paolo VI, vol. spirit VIII, 506면 참조.
- [178]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83항 참조: AAS 112 (2020), 1033-1034면.
- [17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6항 참조: AAS 58 (1966), 1046-1047면.
- [180] 성 바오로 6세, 제20차 유엔 총회 연설 (1965년 10월 4일): AAS 57 (1965), 881면.
- [181] 유엔, 유엔 헌장, 샌프란시스코 (1945년 6월 26일), 전문.
- [182]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58항 참조: AAS 112 (2020), 1061면: “최근 수십 년 동안 모든 전쟁은 표면상 ‘정당화’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역시 군사력을 통한 합법적 방어의 가능성을 명시하며, 일정한 ‘엄격한 도덕적 정당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권리를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예방적’ 공격이나, 전쟁으로 초래될 해악과 무질서가 ‘제거해야 할 악’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전쟁 행위까지 잘못 정당화하려 합니다.”
- [183] 신앙교리부-문화교육부, 공동 설명서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 2025년 1월 14일), 99항 참조: AAS 117 (2025), 202-203면.
- [184] 같은 글, 103항 참조: AAS 117 (2025), 204면.
- [185] ‘동방 가톨릭 교회 원조 기구 협의회(ROACO)’ 총회 참가자 대상 연설 (2025년 6월 26일) 참조: AAS 117 (2025), 847-849면.
- [186] 프란치스코, 제53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19년 12월 8일) 참조: AAS 112 (2020), 54-61면.
- [187] J.R.R. 톨킨,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The Lord of the Rings), 제3부, 제5권, 제9장, New York 1965, 190면.

- [188] 언론 매체 대표들과의 만남 연설 (2025년 5월 12일): AAS 117 (2025), 682면.
- [189] 같은 글.
PDF
- [190]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31세계 평화의 날 담화 (1998년 1월 1일), 1항: AAS 90 (1988), 147면.
- [191] 성 아우구스티노, 《시편 주해》(Enarrationes in Psalmos), 84, 12: CCSL 39, Turnhout 1956, 1172-1173면.
- [192] 프란치스코, 회칙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 2024년 10월 24일), 22항 참조: AAS 116 (2024), 1375-1376면.
- [193]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115항: AAS 112 (2020), 1008-1009면.
- [194] 같은 글, 261항 참조: AAS 112 (2020), 1062면.
- [195] 성 바오로 6세, 제20차 유엔 총회 연설 (1965년 10월 4일) 참조: AAS 57 (1965), 878-879면.
- [196] 비오 12세, 담화 《위기의 시간》(A Grave Hour, 1939년 8월 24일) 참조: AAS 31 (1939), 334면.
- [197] 조르조 라 피라, 《공의회에 관한 성찰》(Riflessioni sul Concilio). 피렌체 시장 조르조 라 피라 교수가 ‘프랑스 가이드단’에게 한 연설 (로마, 1962년 9월 4일), 피렌체 1962, 6면.
- [198] 동방 교회 희년 참가자 대상 연설 (2025년 5월 14일): AAS 117 (2025), 686면.
- [199]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71항 참조: AAS 112 (2020), 1066면.
- [200] 프란치스코, 아시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평화 호소문 “평화에 대한 갈구: 대화 안의 신앙과 문화들” (2016년 9월 20일) 참조: AAS 108 (2016), 1124면.
- [201] 프란치스코, 교황청 주재 외교단 연설 (2025년 1월 9일): AAS 117 (2025), 110면.
- [202] 프란치스코, 제38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자 대상 연설 (2013년 6월 20일) 참조: AAS 105 (2013), 616-617면.
- [203] 교황 직무 시작 첫 ‘우르비 에트 오르비’(로마 시와 전 세계에게) 강복 (2025년 5월 8일): AAS 117 (2025), 660면.
- [204] 같은 글.
- [20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제1저녁기도 강론 (2025년 12월 31일) 참조: L’Osservatore Romano, 2026년 1월 2일자, 1-2면.
- [206]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강론 (2025년 12월 25일) 참조: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2월 27일자, 3면.
- [207] 같은 글 참조.
- [208] 주님 공현 대축일 삼종기도 오명 참조 (2026년 1월 6일): L’Osservatore Romano, 2026년 1월 7일자, 3면.
- [209] 주님 공현 대축일 밤 미사 강론 (2025년 12월 24일) 참조: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2월 27일자, 2면.
- [210] P. 드 베릴, 《예수님의 지위와 위대함에 관한 담화》(Discours de l’état et des grandeurs de Jésus), 담화 IV, 강생 안의 하느님 일치: Œuvres complètes, Paris 1856, col. 218.

[211] 같은 글.

[212] “인공지능과 공동의 집 돌봄” 컨퍼런스 연설 참조 (2025년 12월 5일):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2월 5일자, 2면.

[213]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05년 12월 25일), 14항: AAS 98 (2006), 228면.

[214]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Sermones), 272: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세례 아동들에게 행한 성사에 대하여: PL 38, Paris 1865, col. 1247.

[215] 베네딕토 16세,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강론 (2011년 4월 21일): AAS 103 (2011), 321면.

[216] 성탄 축하 인사를 교환하는 로마 교황청 인사를 위한 연설 (2025년 12월 22일):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2월 22일자, 6-7면.

[217] 위 글의 11-14항 참조.

[218] “인공지능 시대의 아동과 청소년 존엄성” 컨퍼런스 연설 참조 (2025년 11월 13일):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1월 13일자, 3면.

[219]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34항 참조: AAS 101 (2009), 668-670면.

[220]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 2023년 10월 4일), 67항: AAS 115 (2023), 1059면.

[221] 주님 공현 대축일 삼종기도 (2026년 1월 6일) 참조: L'Osservatore Romano, 2026년 1월 7일자, 3면.

[222] 베네딕토 16세, 일반 알현 (2006년 2월 15일): L'Osservatore Romano, 2006년 2월 16일자, 4면.

[223] 평화를 위한 기도 묵상과 묵주기도 (2025년 10월 11일): L'Osservatore Romano, 2025년 10월 13일자, 2면.

[224] 성 바오로 6세, 보나리아 성모 성지 강론 (1970년 4월 24일): AAS 62 (1970), 301면.